국어 문법 이해·적용 학습지

문법 표현편

종결 · 높임 · 시간 · 피동·사동 · 인용 · 부정

이해·적용 80문항 | 선택형 40 · 서답형 40 | 정답과 해설 수록

종결 높임 시간 피동·사동 인용 부정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개념 지도 — 여섯 영역

종결

A1 끝맺음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질까?

A2 의문문이면 반드시 답을 기다릴까?

높임

A3 한 문장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을까?

A4 사람의 손을 높이는 것은 물건 높임일까?

B1 공손하면 모두 같은 말투일까?

시간

B2 -겠-이 있으면 모두 미래일까?

B3 기준 시점을 옮기면 시제가 달라질까?

B4 과거인데 진행 중일 수 있을까?

피동·사동

C1 같은 사건의 누구를 주어로 세울까?

C2 -어지다가 보이면 모두 피동일까?

C3 누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

C4 모양이 같은 피동·사동을 어떻게 가를까?

인용

D1 말을 그대로 옮길까, 뜻을 전달할까?

D2 말을 전하는 자리가 바뀌면?

부정

D3 안 했을까, 못 했을까?

D4 어느 부분을 부정한 말일까?

분석 4단계

① 상황	→	② 역할·기준	→	③ 표현과 뜻	→	④ 뜻 유지 점검
누가·언제·어디서		높임 대상·시간 기준·행동자		어미·구성의 실제 기능		인물·시간·의도·부정 범위

기호 (가)·(나): 자료 구분 · ㉠·㉡과 밑줄: 살펴볼 표현 · ①②③: 설명 연결 번호 · →: 변환·판단 과정

한눈 지도 — 묶음 목차

영역	묶음	질문	문항
종결	A1	끝맺음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질까?	001~005
종결	A2	의문문이면 반드시 답을 기다릴까?	006~010
높임	A3	한 문장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을까?	011~015
높임	A4	사람의 손을 높이는 것은 물건 높임일까?	016~020
높임	B1	공손하면 모두 같은 말투일까?	021~025
시간	B2	-겠-이 있으면 모두 미래일까?	026~030
시간	B3	기준 시점을 옮기면 시제가 달라질까?	031~035
시간	B4	과거인데 진행 중일 수 있을까?	036~040
피동·사동	C1	같은 사건의 누구를 주어로 세울까?	041~045
피동·사동	C2	-어지다가 보이면 모두 피동일까?	046~050
피동·사동	C3	누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	051~055
피동·사동	C4	모양이 같은 피동·사동을 어떻게 가를까?	056~060
인용	D1	말을 그대로 옮길까, 뜻을 전달할까?	061~065
인용	D2	말을 전하는 자리가 바뀌면?	066~070
부정	D3	안 했을까, 못 했을까?	071~075
부정	D4	어느 부분을 부정한 말일까?	076~080

S5 정답 한눈표 · S6 정답과 해설 · S7 개념–문항 연결표는 책 뒤쪽에 있습니다.

S1 종결 표현과 높임의 대상

종결 A1 끝맺음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질까?

개념ID: 문법07-01

> **한 줄 정의**
> **종결 표현은 문장을 끝맺으며 진술·물음·명령·청유·감탄 등의 기능을 나타낸다.**

핵심 표·도식

종류	기본 기능	예
평서문	사실·생각 진술	복도에 불이 켜졌다.
의문문	내용을 물음	누가 불을 켰니?
명령문	듣는 이에게 행동 요구	불을 꺼라.
청유문	말하는 이도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	함께 불을 끄자.
감탄문	느낌·깨달음을 드러냄	복도가 참 밝구나!

판단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끝맺음 확인		상황·억양 확인		진술·물음·요구·제안·감탄 구별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물음표·마침표만으로 갈래를 결정한다.	종결 어미·상황·억양을 함께 확인한다.
여기 앉아요는 언제나 평서문이다.	사실 진술·앉으라는 요구·함께 앉자는 제안에 쓰일 수 있다.

비유

말풍선의 기능 표시를 떠올리자. 같은 내용도 알림·질문·요구·함께하기 표시에 따라 듣는 이가 할 일이 달라진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끝 글자 하나만으로 기능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상황과 억양도 작용한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명령 / 청유	듣는 이가 하도록 요구 / 말하는 이도 함께 하자고 제안
형식 / 실제 의도	의문 형식으로도 부탁할 수 있음

001 선택형

〈자료〉 문장의 종결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문장: 우리 같이 화단에 물을 ㉠주자.

① 물이 많다는 깨달음에 감탄한다.

② 물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

③ 이미 물을 준 사실을 알려 준다.

④ 듣는 이만 물을 주도록 명령한다.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한다.

답 ( )

002 서답형

각 문장을 평서문·의문문·명령문·청유문·감탄문 중 하나로 분류하자.

〈자료〉

기호	문장
가	버스가 출발했다.
나	짐을 선반에 올려라.
다	하늘이 참 맑구나!

항목	답
가	
나	
다	

003 선택형

자료를 이해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공원에서 아이가 벤치를 가리킨다.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앉을 생각이다.

문장: “우리 여기 ㉠앉아요.”

① 아버지만 앉으라는 명령의 뜻이다.

② -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평서문이다.

③ 듣는 이를 높이면 청유문이 될 수 없다.

④ 문맥상 함께 앉자는 청유의 뜻이다.

⑤ 물음표가 없으므로 행동을 제안할 수 없다.

답 ( )

004 서답형

‘책상을 옮기다’를 이용해 조건에 맞는 문장을 각각 쓰자.

〈자료〉

기호	조건
가	듣는 이에게 옮기라고 요구하며 -아라/-어라로 끝낸다.
나	함께 옮기자고 제안하며 -자로 끝낸다.

항목	답
가	
나	

005 선택형

두 문장을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가) 문장: 소포가 ㉠도착했다.

(나) 문장: 소포가 ㉡도착했니?

① (가)와 (나)는 모두 행동을 명령한다.

② (가)는 느낌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감탄문이다.

③ 같은 도착 사건을 두고 (가)는 진술하고 (나)는 묻는다.

④ (나)는 말하는 이와 함께 도착하자는 뜻이다.

⑤ 물음표를 붙였으므로 (나)의 과거 표현은 사라졌다.

답 ( )

종결 A2 의문문이면 반드시 답을 기다릴까?

개념ID: 문법07-01 · 문법07-02

한 줄 정의

의문문은 실제 답을 요구하기도 하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강조·감탄·명령 등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핵심 표·도식

갈래	대답 필요	요구하는 답·효과	예
설명 의문문	O	구체적인 내용	우산을 어디에 두었니?
판정 의문문	O	예·아니요의 판단	우산을 챙겼니?
수사 의문문	X	강한 긍정·부정의 강조(반어)	힘을 모으면 무엇을 못 하겠니?
수사 의문문	X	감탄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겠니!
수사 의문문	X	명령	빨리 오지 못하겠니?

판단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실제로 답을 요구하나		답이 내용인가·예/아니요인가		답을 요구하지 않으면 강조·감탄·명령 효과 확인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의문사가 있으면 언제나 실제 질문이다.	누가 예상했겠니는 상황에 따라 놀라움을 강조한다.
상자를 들어 줄래의 형식과 의도는 같다.	형식은 의문문, 실제 의도는 요청으로 나누어 적는다.

비유

설명 의문문은 어디·누구라는 정보 칸을, 판정 의문문은 맞음·아님 칸을 채워 달라는 질문과 비슷하다. 수사 의문문은 답 대신 뜻을 힘주어 전한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의문문의 실제 의도는 대화 상황에서 확인한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설명 / 판정	구체적인 내용 / 예·아니요의 판단
형식 / 의도	의문 형식 / 요청·명령 등 실제로 하려는 일

006 서답형

실제로 정보를 묻는 두 문장을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으로 나누고, 가능한 답을 하나씩 쓰자.

〈자료〉

(가) 문장: 체육관은 ㉠어느 쪽에 있니?

(나) 문장: 체육관 문이 ㉡열렸니?

항목	답
가의 갈래	
가의 답 예	
나의 갈래	
나의 답 예	

007 선택형

㉠의 의도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친구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니 할 수 있어.”라며 나를 격려했다.

문장: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을 못 하겠니?”

① 못 하는 일의 전체 목록을 조사한다.

② 우리에게 힘을 합치지 말라고 금지한다.

③ 같이 노력할 수 없다는 뜻을 확정한다.

④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⑤ 이미 실패한 사실을 정확히 보고한다.

답 ( )

008 서답형

문장 형식과 실제 의도를 구별해 쓰자. 형식은 평서·의문·명령·청유·감탄 중 고르자.

〈자료〉

상황: 손에 짐을 든 사람이 문 앞의 친구에게 문을 여는 도움을 바란다.

문장: "문을 좀 ㉠열어 주겠니?"

항목	답
문장 형식	
실제 의도	

009 선택형

학생의 판단을 바로잡은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길을 모르는 여행자가 위치를 묻는다.

문장: "㉠역이 어디에 있나요?"

학생의 판단: 높임말을 썼으니 수사 의문문이다.

① 예·아니요만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② 역으로 같이 가자는 청유문이다.

③ 높임 여부와 별개로 역의 위치를 실제로 묻는 설명 의문문이다.

④ 어디라는 말이 있으므로 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⑤ 높임말을 쓴 모든 질문은 수사 의문문이다.

답 ( )

010 서답형

두 상황에서 의문문이 실제 답을 요구하는지 O/X로 표시하고 이유를 쓰자.

〈자료〉

기호	자료
가	상황: 결승 결과를 모른다. 문장: “누가 이겼니?”
나	상황: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보고 놀란다. 문장: “이 승리를 누가 예상했겠니!”

항목	답
가	
나	

높임 A3 한 문장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을까?

개념ID: 문법07-03

한 줄 정의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객체 높임은 목적어·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상대 높임은 듣는 이를 대우한다.

핵심 표·도식

아버지①께서 할머니②께 약을 ②드리①셨③어요.

번호·갈래	높임 대상	표현
① 주체 높임	약을 드리는 아버지	께서·-(으)시-
② 객체 높임	약을 받는 할머니	께·드리다
③ 상대 높임	이 말을 듣는 사람	-어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계시다·주무시다	뵙다·모시다·드리다·여쭙다

판단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누가 하나: 주체		누구를·누구에게: 객체		누가 듣나: 상대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객체는 목적어만 뜻한다.	부사어 할머니께가 가리키는 대상도 객체이다.
높임 표현은 모두 듣는 이를 높인다.	-시-는 주체를, -어요는 듣는 이를 높인다.

비유

높임을 보내는 화살표를 그리면 한 문장에서도 주체·객체·듣는 이라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높임의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이지 물건이 이동하는 경로가 아니다.

헷갈리는 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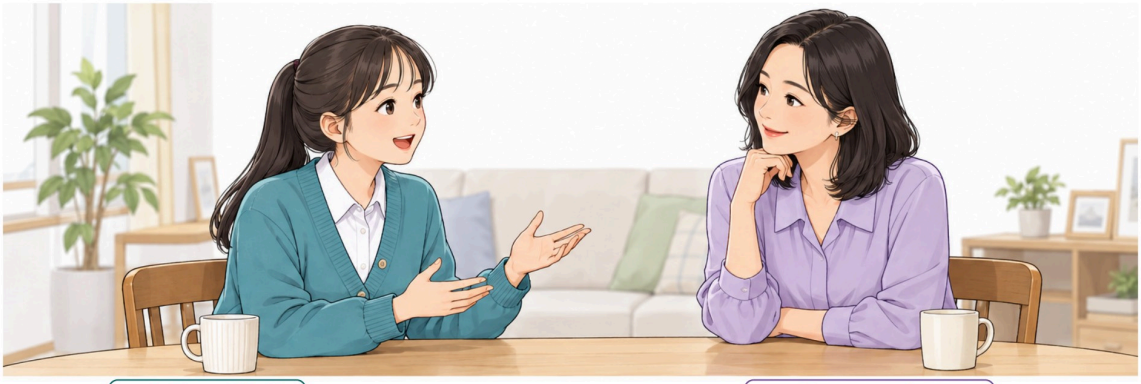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께서 / 께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
-시- / -어요	서술의 주체 / 듣는 이

G-03 · 높임

높임이 향하는 세 사람

학생이 이모에게 하는 말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약을 드리셨어요.



말하는 학생 ③ 듣는 이모

문장 속 사건



① 아버지 ② 할머니

① 주체: 아버지 — 께서·-시-

② 객체: 할머니 — 께·드리다

③ 상대: 듣는 이모 — -어요

011 선택형

‘드렸다’가 높이는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문장: 나는 선생님께 사진을 ㉠드렸다.

① 사진을 받는 선생님

② 이 문장을 듣는 모든 사람

③ 사진이라는 물건

④ 문장에 없는 사진을 찍은 사람

⑤ 사진을 드리는 나

답 ( )

---

012 서답형

세 표현이 높이는 대상과 높임법을 각각 쓰자.

〈자료〉

상황: 아이가 어머니께 할아버지의 일을 전한다.

문장: “할아버지㉠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쭈㉠셨㉢어요.”

항목	답
㉠	
㉡	
㉢	

013 선택형

두 문장의 높임 표현을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가) 문장: 누나가 ㉠돌아왔다.

(나) 문장: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① -습니다가 누나를 직접 높이는 -시-이다.

② (나)는 객체인 누나를 높인다.

③ 두 문장의 주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④ 종결 표현을 바꾸어 듣는 이를 대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⑤ (나)에서는 돌아온 사실을 알 수 없다.

답 ( )

014 서답형

‘제가’와 ‘-습니다’를 유지하면서, 만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도록 서술어를 고치자.

〈자료〉

문장: 제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항목	답
고친 문장	
높임법	

015 선택형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문장: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신다.

① 계시다는 언제나 듣는 이만 높인다.

② -다로 끝나므로 주체 높임도 나타날 수 없다.

③ 께서와 계시다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인다.

④ 께서가 교실이라는 장소를 높인다.

⑤ 선생님은 목적어이므로 객체 높임만 나타난다.

답 ( )

높임 A4 사람의 손을 높이는 것은 물건 높임일까?

개념ID: 문법07-03 · 문법07-04

한 줄 정의

직접 주체 높임은 사람 자체를, 간접 주체 높임은 그 사람과 밀접한 신체·소유물·심리 등을 통해 사람을 높인다.

핵심 표·도식

구분	예	판정 기준
직접 주체 높임	할머니께서 마당에 계신다.	사람 자체의 행동·상태를 높임
간접 주체 높임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시다.	신체·생각·사정·가까운 소유물 등을 통해 사람을 높임

O: 간접 높임	X: 부적절한 사물 높임
할머니는 걱정이 있으시다.	손님, 주문한 주스가 나오셨습니다.
높일 사람과 밀접한 신체·심리 등을 서술	판매 물건·가격·서비스 자체를 높임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 딸린 것이 있다
할머니께서 마당에 계신다.	할머니는 걱정이 있으시다.

판단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각 서술어의 주체 확인		사람 자체·밀접한 대상·판매 정보 구별		계시다·있으시다 또는 사물 높임 제거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사람과 관련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높인다.	판매 물건·가격·서비스 자체에 -시-를 붙이지 않는다.
걱정이 계신다라고 쓴다.	심리의 존재를 통해 높일 때는 걱정이 있으시다라고 쓴다.

비유

사람의 이름표와 신체·심리의 연결선을 떠올리자. 연결된 부분을 말해도 존중이 향하는 대상은 사람이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손님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물건 모두를 높이지는 않는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계시다 / 있으시다	사람의 장소 존재 / 밀접한 대상의 존재·소유를 통한 높임
간접 높임 / 사물 높임	신체·심리 등을 통해 사람을 높임 / 사물 자체를 높이는 오류

016 서답형

직접·간접 주체 높임을 구별하고, 높임이 향하는 사람을 쓰자.

〈자료〉

(가) 문장: 어르신께서 의자에 ㉠앉으셨다.

(나) 문장: 어르신은 허리가 ㉡아프시다.

항목	답
가	
나	

017 선택형

빈칸에 들어갈 말의 짝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가) 문장: 할아버지께서 서재에 _____.

(나) 문장: 할아버지는 하실 말씀이 _____.

① 계신다 / 계신다

② 있으시다 / 계신다

③ 계신다 / 계시다

④ 있다 / 계신다

⑤ 계신다 / 있으시다

답 ( )

018 서답형

손님을 대우하는 -습니다는 유지하고, 부적절한 사물 높임만 고치자. '주문하신'을 유지하는 이유도 쓰자.

〈자료〉

문장: 손님, ㉠주문하신 빵이 ㉡나오셨습니다.

항목	답
고친 문장	
주문하신을 유지하는 이유	

019 선택형

〈자료〉 문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료〉

문장: 선생님은 귀가 ㉠밝으시다.

① 신체 일부인 귀의 상태를 통해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였다.

② 귀가 듣는 이이므로 상대 높임이다.

③ 귀가 목적어이므로 객체 높임이다.

④ 신체 부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를 쓸 수 없다.

⑤ -시-가 있으므로 선생님이 반드시 이 말을 듣고 있다.

답 ( )

020 서답형

두 문장의 -시-가 적절한지 O/X로 표시하고, X인 문장은 -어요를 유지하여 고치자.

〈자료〉

(가) 문장: 할아버지는 손이 ㉠크세요.

(나) 문장: 손님, 이 상품은 ㉡품절이세요.

항목	답
가	
나	
나를 고친 문장	

S2 상대 높임과 시간 표현

높임 B1 공손하면 모두 같은 말투일까?

개념ID: 문법07-03 · 문법07-05

> **한 줄 정의**
> **상대 높임은 듣는 이를 대우하는 방식이며, 격식성의 구분과 높임의 정도를 함께 살핀다.**

핵심 표·도식

격식체

등급·높임 정도	평서	의문	명령	청유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갑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가십시다*
하오체·예사 높임	가오	가오?	가시오	갑시다
하게체·예사 낮춤	가네	가는가?	가게	가세
해라체·아주 낮춤	간다	가니?	가라	가자

비격식체

등급·높임 정도	평서	의문	명령	청유
해요체·두루 높임	가요	가요?	가요	함께 가요
해체·두루 낮춤	가	가?	가	함께 가

*가십시다의 -(으)십시다는 하십시오체 청유형이지만, 실제로 윗사람에게 쓰면 실례가 될 수 있다.

판단 순서

1단계 종결형과 문맥 확인 → **2단계** 높임 등급 이름 확인 → **3단계** 격식체·비격식체 구별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격식체는 모두 높임말이다.	해라체·하게체도 격식체이다.
읽습니다와 읽어요는 같은 등급이다.	둘 다 높이지만 격식성과 등급 이름이 다르다.
해라체 설명문은 독자를 무시한다.	등급 이름만으로 실제 태도를 단정하지 않는다.
-네 같은 어미는 언제나 한 등급에만 쓰인다.	일부 어미는 등급이 겹치므로 문맥도 확인한다.

비유

예의를 갖춘 옷에도 정장과 일상복이 있듯, 상대를 높이는 말투에도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말투의 등급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등급이 아니며 옷차림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하십시오체 / 해요체	둘 다 높임 /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다름
해라체 / 해체	둘 다 높이지 않는 쪽 / 격식성이 다름

021 선택형

두 평서형을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가) 문장: 저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나) 문장: 저는 여기서 ㉡기다려요.

① (나)의 -요는 기다리는 주체만 높인다.

② 둘 다 비격식체이다.

③ 공손함이 같으면 문법상 등급 이름도 같다.

④ (가)만 상대를 높이고 (나)는 상대를 낮춘다.

⑤ 둘 다 상대를 높이지만 (가)는 격식체, (나)는 비격식체이다.

답 ( )

022 서답형

각 문장의 상대 높임 등급과 격식체·비격식체 여부를 쓰자.

〈자료〉

(가) 문장: 오늘 ㉠떠나오.

(나) 문장: 우리 먼저 ㉡가세.

(다) 문장: 나는 ㉢집에 가.

항목	답
가	
나	
다	

023 선택형

주체 높임은 유지하면서 상대 높임만 해요체로 바꾼 것은?

〈자료〉

문장: 할머니께서 일찍 ㉠주무십니다.

① 할머니가 일찍 자요.

② 할머니께서 일찍 주무세요.

③ 할머니께서 일찍 주무시오.

④ 할머니께서 일찍 잔다.

⑤ 할머니께서 일찍 주무신다.

답 ( )

024 서답형

‘나는 지금 출발한다.’의 사건과 시간을 유지하여 제시한 평서형으로 바꾸자. ‘나는’은 ‘저는’으로 바꾸자.

〈자료〉

기호	조건
가	하십시오체
나	해요체

항목	답
가	
나	

025 선택형

상대 높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설명문에서 물의 이동을 서술한다.

문장: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① 해라체가 쓰였지만 특정 독자를 모욕하려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주어가 물이므로 상대 높임 등급을 분석할 수 없다.

③ 격식체이므로 반드시 하십시오체이다.

④ -다가 있으면 듣는 이를 아주 높인다.

⑤ 해라체는 언제나 명령문만 만든다.

답 ( )

시간 B2 -겠-이 있으면 모두 미래일까?

개념ID: 문법07-06

> **한 줄 정의**
> **시제는 기준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때의 관계이며, 어미·시간 표현·문맥을 함께 읽어 판단한다.**

핵심 표·도식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 시간선

과거: 말하기 전	현재: ▼말하는 때	미래: 말하기 뒤
어제 씨앗을 심었다.	지금 씨앗을 심는다.	내일 씨앗을 심을 것이다. 내일은 비가 오겠다.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방법	과거	현재	미래
선어말 어미	-았/었-…-더-(회상)	동사 -는-…-ㄴ- 형용사는 별도 현재 선어말 어미 없음	-겠-
관형사형 어미	동사 -(으)ㄴ-…-던 읽은 책·읽던 책	동사 -는: 읽는 책 형용사 -(으)ㄴ: 작은 방	-(으)ㄹ: 읽을 책
시간 부사	어제	지금	내일

같은 -(으)ㄴ, 다른 시간

동사에 붙은 -(으)ㄴ	형용사에 붙은 -(으)ㄴ
읽은 책: 읽다·과거	작은 방: 작다·현재

어미의 뜻과 문맥

표현	뜻	예
-겠-	미래: 앞으로의 일에 대한 추측	내일은 비가 오겠다.
-겠-	현재 상태의 추측	지금쯤 객실이 조용하겠다.
-겠-	의지	이번 일은 내가 맡겠다.
-겠-	가능성	이 정도 높이는 나도 넘겠어.
-겠-	완곡한 표현	창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았/었-	과거	어제 얼음이 녹았다.
-더-	과거 경험의 회상	직접 가 보니 경치가 좋더라.

판단 순서

1단계
시간 부사·상황 확인

→

2단계
어미와 앞말의 품사 확인

→

3단계
형태와 실제 사건 시간을 비교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겠-이면 언제나 미래이다.	지금 미끄럽겠구나는 현재 상태의 추측이다.
현재형이면 반드시 지금의 일이다.	내일 집에서 쉰다는 미래의 계획이다.
-(으)ㄴ은 언제나 과거이다.	동사 읽은은 과거, 형용사 작은은 현재이다.

비유

일정표의 지금 표시와 사건 표시를 비교하면 시제의 앞·동시·뒤 관계가 보인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어미는 날짜처럼 고정된 때만 나타내지 않으며 -겠-은 태도도 드러낸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겠- / 미래	추측·의지·가능성·완곡함도 나타남
동사 / 형용사의 현재	읽는다 / 예쁘다처럼 실현 방식이 다름

G-06 · 시간

시간과 말하는 태도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심었다	지금 심는다	내일 심을 것이다

말하는 때: 지금



“지금쯤 방이 조용하겠구나.”

-겠-: 이 문맥에서는 현재 상태의 추측

내일은 비가 오겠다: 미래의 추측

026 서답형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각 사건·상태의 시제를 쓰고, 판단 근거가 되는 말을 하나씩 적자.

〈자료〉

(가) 문장: 어제 우산을 ㉠<u>샀다</u>.

(나) 문장: 지금 마당이 ㉡<u>조용하다</u>.

(다) 문장: 모레 박물관에 ㉢<u>갈 것이다</u>.

항목	답
가	
나	
다	

027 선택형

자료 속 -겠-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밖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창밖의 눈을 보고 길의 상태를 짐작한다.

문장: "지금 길이 많이 ㉠미끄럽겠구나."

① 반드시 내일의 상태만 나타낸다.

② 과거에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한다.

③ 자신이 길을 미끄럽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④ 현재 길의 상태를 추측한다.

⑤ 길이 미끄럽지 않다는 부정을 나타낸다.

답 ( )

028 서답형

각 -겠-의 뜻을 의지·추측 중 하나로 쓰고 근거를 적자.

〈자료〉

(가) 상황: 스스로 다짐한다.

(가) 문장: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

(나) 상황: 동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나) 문장: 소리가 없는 것을 보니 동생이 벌써 ㉡잠들었겠다.

항목	답
가	
나	

029 선택형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이미 정한 계획을 말한다.

문장: 내일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① 현재형이므로 반드시 지금 공부하고 있다.

② 계획을 말했으므로 문장 전체가 명령문이다.

③ -겠-이 없으면 미래 일을 말할 수 없다.

④ 내일이 있어도 사건 시간은 반드시 과거이다.

⑤ 공부한다라는 현재형이 문맥에서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다.

답 ( )

030 서답형

밑줄 친 ㉠·㉡을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과 '형용사의 현재 관형사형'으로 구별하자.

〈자료〉

(가) 문장: 내가 어제 ㉠접은 종이

(나) 문장: 지금 하늘의 ㉡붉은 노을

항목	답
㉠	
㉡	

시간 B3 기준 시점을 옮기면 시제가 달라질까?

개념ID: 문법07-06 · 문법07-07

> **한 줄 정의**
> **절대 시제는 말하는 때를, 상대 시제는 다른 사건의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핵심 표·도식

오늘 말한다. 어제 본 순간 아이가 공을 차고 있었다.

어제 나는 공을 차는 아이를 보았다.

어제	오늘
▼기준점 ②: 본 때 공차기와 봄이 겹침	▼기준점 ①: 말하는 때 공차기는 이보다 앞섬

살펴볼 사건	기준	시간 관계	분류
공을 참	오늘 말하는 때	앞섬	절대 시제: 과거
공을 참	어제 본 때	겹침	상대 시제: 현재

판단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발화시·다른 사건시를 표시		판단할 기준점을 선택		앞섬·겹침·뒤임을 판단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차는의 -는이 있으니 오늘도 공을 찬다.	이 문장의 차는 때는 어제 본 때와 겹친다.
기준을 바꾸면 실제 사건도 이동한다.	같은 사건을 비교하는 기준만 달라진다.

비유

줄에서 지우는 민수 뒤, 서윤이 앞에 있다. 같은 지우라도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앞·뒤가 달라진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줄은 자리이고 시제는 시간 관계이다. 기준을 바꾸어도 사건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발화시 / 다른 사건시	절대 시제의 기준 / 상대 시제의 기준
현재형 -는 / 발화시의 현재	안긴절에서는 다른 사건과 동시일 수 있음

G-07 · 시간

사건은 그대로, 기준만 이동

어제 나는 공을 차는 아이를 보았다.



오늘 말하는 때 기준 → 과거
어제 본 때 기준 → 현재

줄 서기 비유

앞쪽: 왼쪽



민수를 기준으로 → 지우는 뒤
서윤이를 기준으로 → 지우는 앞

실제 사건은 그대로, 비교 기준만 다름

031 선택형

‘노래하는’의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오늘 어제의 일을 말한다. 지우는 내가 본 바로 그 순간 노래하고 있었다.

문장: “어제 나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지우를 보았다.”

① 어제 본 때보다 반드시 먼저 노래를 끝냈다.

② 오늘의 발화시 기준으로 과거, 어제 본 때 기준으로 현재이다.

③ 오늘 말했으므로 보는 사건도 오늘이다.

④ 두 기준에서 모두 미래이다.

⑤ -는이 있으므로 오늘도 반드시 노래한다.

답 ( )

---

032 서답형

표의 기준에 따라 읽는 사건의 시제를 각각 쓰자.

〈자료〉

상황: 오늘 어제의 일을 말한다. 동생은 말을 건 순간 책을 읽고 있었다.

문장: “어제 나는 책을 ㉠읽는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항목	답
오늘 말하는 때 기준	
어제 말을 건 때 기준	

033 선택형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점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오늘 이 일을 이야기한다.

문장: 어제 준호는 그보다 하루 먼저 ㉠완성한 모형을 보여 주었다.

① 오늘 이야기하므로 모형 완성은 오늘이다.

② 완성과 보여 주기는 반드시 같은 순간이다.

③ 상대 시제는 언제나 현재로만 나타난다.

④ 모형 완성은 보여 준 때보다 앞서므로 그때를 기준으로도 과거이다.

⑤ 보여 준 때를 기준으로 모형 완성은 미래이다.

답 ( )

034 서답형

만남·떠남·말함 세 사건을 이른 순서대로 쓰고, '떠날'이 나타내는 시간을 두 기준으로 판단하자.

〈자료〉

상황: 화요일에 말한다. 친구는 실제로 월요일에 떠났다.

문장: "나는 일요일에, 월요일에 ㉠떠날 친구를 만났다."

항목	답
이른 순서	
만난 때 기준의 떠남	
말하는 때 기준의 떠남	

035 선택형

학생의 판단을 고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촬영하는 순간 강아지는 잠들어 있었다.

문장: 어제 나는 ㉠자는 강아지를 촬영했다.

학생의 판단: 자는이 현재형이므로 오늘도 자고 있다는 뜻이다.

① 현재형이므로 촬영도 반드시 오늘이다.

② 자는 강아지는 관형절이므로 시간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③ 자는 때는 촬영한 때와 겹치며, 오늘의 상태는 이 문장만으로 알 수 없다.

④ 자는 때는 촬영 이후의 미래로만 해석된다.

⑤ 어제가 있으므로 강아지는 촬영 전에 반드시 깨어났다.

답 ( )

시간 B4 과거인데 진행 중일 수 있을까?

개념ID: 문법07-06 · 문법07-08

한 줄 정의

시제는 사건의 때를, 동작상은 사건이 진행되거나 끝난 결과가 남아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핵심 표·도식

시제 / 동작상	진행상	완료상: 결과 상태의 지속
과거	어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어제 문이 열려 있었다.
현재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다.	지금 문이 열려 있다.

이 책은 동작의 끝남과 결과 상태의 지속을 완료상으로 묶는다. '숙제를 끝내 버렸다'도 끝남을 드러낸다.

판단 순서

1단계 사건·상태의 때 확인 → **2단계** 동작 진행·끝남·결과 지속 확인 → **3단계** 시제와 동작상을 각각 기록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과거는 완료, 현재는 진행이다.	과거의 진행·현재의 결과 지속도 가능하다.
안경을 쓰고 있다는 언제나 진행이다.	쓰는 동작 중이면 진행, 이미 쓴 상태면 완료상이다.

비유

영상의 날짜는 시제의 단서, 화면 속 진행이나 남은 결과는 동작상의 단서이다. 어제 영상에서도 동작은 진행 중일 수 있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정지 화면만으로는 구별되지 않을 수 있어 앞뒤 상황이 필요하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과거 / 완료	언제인지 / 어떤 진행 모습을 보이는지라는 다른 기준
-고 있다 / 진행	이미 착용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함

G-08 · 시간

날짜와 동작의 모습을 따로 읽기

어제 · 과거	지금 · 현재
	
진행상 어제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완료상: 열린 결과의 지속 지금 문이 열려 있다.

날짜는 언제, 장면은 진행·결과를 보여 줌

036 서답형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시제와 동작상을 각각 쓰자.

〈자료〉

(가) 문장: 어제 여덟 시에 나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나) 상황: 거는 동작은 끝나고 그 상태가 유지된다.

(나) 문장: 지금 액자가 벽에 ㉡걸려 있다.

항목	답
가	
나	

037 선택형

‘장갑을 끼고 있다’의 해석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추운 운동장이다. 지우는 아까 장갑을 다 꼈고, 지금도 벗지 않은 채 달린다.

문장: “지우는 장갑을 ㉠끼고 있다.”

① 장갑에 손가락을 넣는 동작이 지금 진행 중이다.

② 지우가 장갑을 벗고 있음을 뜻한다.

③ 장갑을 낀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완료상이다.

④ -고 있다가 있으므로 문맥과 무관하게 진행상이다.

⑤ 장갑을 낄 예정이라는 미래만 나타낸다.

답 ( )

038 서답형

같은 문장이 두 동작상으로 읽히도록 상황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자.

〈자료〉

문장: 민수가 외투를 ㉠입고 있다.

항목	답
진행상으로 읽히는 상황	
완료상으로 읽히는 상황	

039 선택형

자료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자료〉

문장: 어제 내가 도착했을 때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① 있었다가 있으므로 창문을 여는 동작이 계속 반복되었다.

② 과거 시점에 열린 결과 상태가 지속되었다.

③ 열린 결과가 있었으므로 시제는 반드시 현재이다.

④ 이미는 사건이 앞으로 처음 시작될 것을 나타낸다.

⑤ 어제이므로 동작상은 반드시 진행이다.

답 ( )

040 서답형

학생의 두 판단을 O/X로 표시하고, X인 판단을 바르게 고치자.

〈자료〉

기호	판단
가	‘어제 나는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는 과거 시제와 진행상이 함께 나타난다.
나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는 앉은 결과가 이어지므로 과거 시제이다.

항목	답
가	
나	
나를 고친 판단	

피동·사동 C1 같은 사건의 누구를 주어로 세울까?

개념ID: 문법07-09 · 문법07-10

한 줄 정의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하는 표현이고, 피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의 동작을 받는 표현이다.

핵심 표·도식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성분·역할	능동문	피동문
동작을 하는 고양이	고양이가: 주어	고양이에게: 부사어
동작을 받는 문	문을: 목적어	문이: 주어
서술어	밀었다	밀렸다

고양이가 문을 밀었다. → 문이 고양이에게 밀렸다.

갈래	실현 방식	예
짧은 피동 (파생적 피동)	-이-·-히-·-리-·-기- 명사+-되다·-받다·-당하다	놓이다·닫히다·밀리다·안기다 취소되다·칭찬받다·공격당하다
긴 피동 (통사적 피동)	-아/어지다·-게 되다	다리가 만들어졌다. 친구의 권유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판단 순서

1단계 동작 주체·받는 대상 확인 → **2단계** 주어가 맡은 역할 확인 → **3단계** 조사·서술어·시제의 변화 확인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꾸면 된다.	조사와 서술어도 바꾸어 동작 관계를 유지한다.
어떤 동사든 같은 피동 접미사를 붙인다.	낱말에 맞는 피동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동문에는 행위자가 항상 드러난다.	만들어진 다리처럼 행위자는 생략될 수 있다.
피동이면 반드시 손해를 입는다.	칭찬받다처럼 긍정적인 일도 피동이다.

비유

같은 사건에서 카메라가 미는 고양이 대신 밀리는 문을 중심으로 비추듯 서술의 중심을 바꾼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어순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조사와 서술어도 바꾸어야 한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피동 / 사동	동작을 받음 / 다른 대상이 동작하게 함
피동 / 피해	문법의 피동이 반드시 손해를 뜻하지는 않음

G-09 · 피동·사동

한 사건을 두 대상 중심으로



같은 사건, 다른 서술의 중심

041 선택형

같은 사건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자료〉

(가) 문장: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나) 문장: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① 두 문장은 사건 자체가 서로 반대이다.

② 나에서 경찰에게는 목적어이다.

③ 나는 경찰이 다른 사람에게 잡도록 시킨다는 뜻이다.

④ 가의 목적어가 나의 주어가 되어 잡는 동작을 받는다.

⑤ 두 문장 모두 도둑이 잡는 동작을 한다.

답 ( )

---

042 서답형

주어진 단어를 써서 피동문으로 바꾸자. 바람을 문장에 남기고 과거 시제를 유지하자.

〈자료〉

능동문: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었다.

사용할 말: 꺾이다, 에

항목	답
피동문	

---

043 선택형

자료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자료〉

문장: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를 ㉠만들었다. → 돌다리가 ㉡만들어졌다.

① -어지다가 피동을 나타내며, 만든 사람은 뒤 문장에서 생략되었다.

② 뒤 문장에서 돌다리가 스스로 만드는 동작을 한다.

③ 피동문에서는 동작을 한 대상을 생략할 수 없다.

④ 만들어졌다는 현재 시제만 나타낸다.

⑤ -어지다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만들도록 시킨 사동이다.

답 ( )

044 서답형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를 찾아 쓰고, '피동은 언제나 피해를 나타낸다'는 판단을 O/X로 표시하자. 판단의 이유도 쓰자.

〈자료〉

문장: 성실한 봉사 활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항목	답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	
판단	
이유	

045 선택형

학생의 피동문 만들기 방법을 고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학생: 어떤 동사든 끝에 -히-를 붙이면 피동사가 된다.

① 피동은 -히-로만 나타낼 수 있다.

② 피동형의 유무와 자연스러운 형태를 낱말마다 확인해야 한다.

③ 능동문의 주어를 그대로 두고 뜻만 피동으로 읽으면 된다.

④ 동사뿐 아니라 모든 형용사에도 -히-를 붙이면 피동사가 된다.

⑤ 조사만 바꾸면 서술어는 언제나 그대로 두어도 된다.

답 ( )

피동·사동 C2 -어지다가 보이면 모두 피동일까?

개념ID: 문법07-09 · 문법07-10 · 문법07-11

한 줄 정의

피동 여부와 겹침 여부는 모양만 세지 말고, 각 표현이 문장 안에서 하는 일을 확인한다.

핵심 표·도식

표현	앞말 품사·기능	판정
종이가 찢어졌다.	찢다: 동사	피동
날씨가 따뜻해졌다.	따뜻하다: 형용사	상태 변화
그 문장이 읽혀진다.	읽히다: 피동사	이중 피동: 읽힌다로 고쳐 쓰기
등불이 밝혀졌다.	밝히다: 사동사	사동+피동: 이중 피동 아님

판단 순서

1단계 앞말의 품사 확인 → **2단계** 이미 피동·사동 접미사가 있나 → **3단계** 그 접미사의 기능 확인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어지다는 언제나 피동이다.	따뜻해지다는 형용사의 상태 변화이다.
읽혀진다는 피동 표현을 그대로 쓴다.	피동 접미사 뒤에 -어지다가 다시 붙은 이중 피동은 고쳐 쓴다.
-히-와 -어지다가 보이면 모두 이중 피동이다.	등불이 밝혀졌다는 사동 뒤에 피동이 결합한 예이다.

비유

같은 문서에 확인 도장을 두 번 찍으면 같은 일을 겹친 것이다. 허락 도장과 확인 도장은 모양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일을 한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도장은 기능의 같고 다름만 빗댄다. 실제 피동·사동은 낱말의 뜻과 문맥으로 판별한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찢어지다 / 따뜻해지다	피동 / 상태 변화
읽혀지다 / 밝혀지다	피동의 겹침 / 사동 표현에 피동이 결합한 예

046 서답형

밑줄 친 ㉠·㉡을 '피동'과 '상태 변화'로 나누고, 각각 '-아/어지다'가 붙기 전 용언의 기본형을 적자.

〈자료〉

(가) 문장: 누군가의 실수로 종이봉투가 ㉠찢어졌다.

(나) 문장: 봄이 되어 공기가 ㉡따뜻해졌다.

항목	답
㉠	
㉡	

047 선택형

불필요하게 겹친 피동 표현을 줄이면서 뜻을 유지한 것은?

〈자료〉

문장: 그 안내문은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다.

① 그 안내문은 많은 사람을 읽게 한다.

② 그 안내문은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

③ 그 안내문은 많은 사람을 읽는다.

④ 그 안내문은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한다.

⑤ 그 안내문은 많은 사람에게 읽혀져진다.

답 ( )

048 서답형

각 화살표에서 더해진 뜻을 '사동·피동' 중 하나로 쓰고, 그 뜻을 '~게 하다·~는 동작을 받다'처럼 풀어 쓰자. 이중 피동인지도 이유와 함께 판단하자.

〈자료〉

상황: 관리인이 등불을 밝혔다. 그 결과 등불이 밝혀졌다.

변환: 밝다 → ㉠밝히다 → ㉡밝혀지다

항목	답
㉠에서 더해진 뜻	
㉡에서 더해진 뜻	
이중 피동인지	

049 선택형

㉠·㉡의 기능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자료〉

(가) 상황: 학급 회의에서 새 규칙을 정했다.

(가) 문장: 새 규칙이 ㉠정해졌다.

(나) 상황: 비가 그친 뒤 공기의 상태가 달라졌다.

(나) 문장: 공기가 ㉡맑아졌다.

① ㉠과 ㉡은 -어지다가 있으므로 모두 피동이다.

② ㉠은 형용사의 상태 변화이고, ㉡은 동사의 피동이다.

③ ㉠은 동사에 결합한 피동, ㉡은 형용사의 상태 변화이다.

④ ㉠과 ㉡은 과거형이므로 모두 사동이다.

⑤ ㉡은 다른 사람이 공기에게 맑아지라고 시킨 사동이다.

답 ( )

050 서답형

판단을 O/X로 표시하고, X인 판단의 잘못을 한 문장으로 고치자.

〈자료〉

기호	판단
가	피동 표현이 겹쳐 불필요하게 길어졌다면 뜻을 유지하며 간결하게 고칠 수 있다.
나	-어지다가 붙은 말은 앞말의 품사나 뜻과 관계없이 모두 피동이다.

항목	답
가	
나	
나를 고친 판단	

피동·사동 C3 누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

개념ID: 문법07-12 · 문법07-13

한 줄 정의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하는 표현이고,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표현이다.

핵심 표·도식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역할	주동문	사동문
새 주어: 웃게 하는 사람	없음	언니가
실제 웃는 사람	아이가: 주어	아이를: 목적어
서술어	웃었다	웃겼다

아이가 웃었다. → 언니가 아이를 웃겼다.

갈래	실현 방식	예
짧은 사동 (파생적 사동)	-이-·-히-·-리-·-기-·-우-·-구-·-추-·-이우- 명사+-시키다	먹이다·입히다·울리다·웃기다·깨우다·돋구다·낮추다 세우다·재우다·태우다 / 교육시키다
긴 사동 (통사적 사동)	-게 하다	친구를 기다리게 하다

돋구다는 안경 도수를 더 높게 한다는 뜻이다.

짧은 사동	긴 사동
직접·간접 사동 모두 가능 옷을 입혔다: 직접 입혀 줌 / 입도록 시킴	주로 간접 사동 옷을 입게 했다: 스스로 입도록 함

판단 순서

1단계
실제 행동·변화를 하는 대상 확인

→

2단계
하게 하는 새 주체 확인

→

3단계
짧은·긴 사동과 실제 참여 방식 구별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사동은 말로 명령하는 것만 뜻한다.	직접 돕거나 다른 대상의 상태를 바꾸는 일도 포함한다.
짧은 사동은 언제나 직접 사동이다.	입혔다처럼 직접·간접 해석이 가능한 예가 있다.
사동문으로 바꾸면 실제 행동자도 바뀐다.	실제 행동자는 유지하고 하게 하는 주체가 더해진다.

비유

행동을 시작하게 한 사람과 실제 행동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나눈다. 운동을 시킨 사람과 뛰는 사람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사동은 말로 명령하는 일만이 아니며 직접 돕거나 상태를 바꾸는 일도 포함한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주동 / 능동	주동은 사동과, 능동은 피동과 대비하는 말
직접 / 간접 사동	시키는 주체의 실제 참여 방식을 문맥에서 확인

G-11 · 피동·사동

행동하는 사람과 하게 하는 사람

주동	사동



아이가 웃었다.



언니가 아이를 웃겼다.

사동은 말로 명령하는 경우만이 아님

051 선택형

사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가) 문장: 아기가 ㉠잤다.

(나) 문장: 아버지가 아기를 ㉡재웠다.

① 가는 다른 대상에게 자도록 시키는 사동이다.

② 나에서 실제로 자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다.

③ 나의 아기는 자는 동작을 하지 않는 물건이다.

④ 나는 아버지가 아기에게 잠을 재움을 당했다는 피동이다.

⑤ 나에서 아버지는 자게 한 주체이고 아기는 자는 주체이다.

답 ( )

052 서답형

주동문에 새로운 주체 '감독'을 넣고 -게 하다를 써서 사동문을 만들자. 과거 시제를 유지하자.

〈자료〉

주동문: 선수들이 운동장을 ㉠달렸다.

항목	답
사동문	

053 선택형

문장과 상황을 함께 읽은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문장: 언니가 동생에게 잠옷을 ㉠입혔다.

상황: 언니가 잠옷을 펼쳐 동생의 두 팔을 소매에 직접 넣어 주었다.

① 잠옷을 실제로 입은 사람은 언니이다.

② 언니가 옷을 입히는 동작에 직접 참여한 사동이다.

③ 접미사 사동은 어떤 문맥에서나 간접 사동만 나타낸다.

④ -히-가 있으므로 언니가 옷을 입음을 당한 피동이다.

⑤ 언니는 말로 지시만 했고 손을 대지 않았다.

답 ( )

054 서답형

상황에 맞게 사동문을 쓰고,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쓰자.

〈자료〉

상황: 음악 소리가 컸다. 민수가 조절 손잡이를 돌려 소리의 크기를 줄였다.

조건: 서술어는 낮추다를 쓰고 과거로 끝내자.

항목	답
사동문	
변한 대상과 상태	

055 선택형

사동 표현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자료〉

상황: 아래 두 문장 외의 상황은 주어지지 않았다.

(가) 문장: 엄마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겼다.

(나) 문장: 엄마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게 했다.

① 가는 피동이고 나는 주동이다.

② 두 문장에서 아이는 신발을 신는 일과 관계없다.

③ 가는 짧은 사동으로 실제 참여 방식은 문맥을 더 보아야 하며, 나는 주로 간접 사동에 쓰이는 긴 사동이다.

④ 가에서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말만 했어야 한다.

⑤ 나에서 신발을 신는 사람은 반드시 엄마이다.

답 ( )

피동·사동

C4 모양이 같은 피동·사동을 어떻게 가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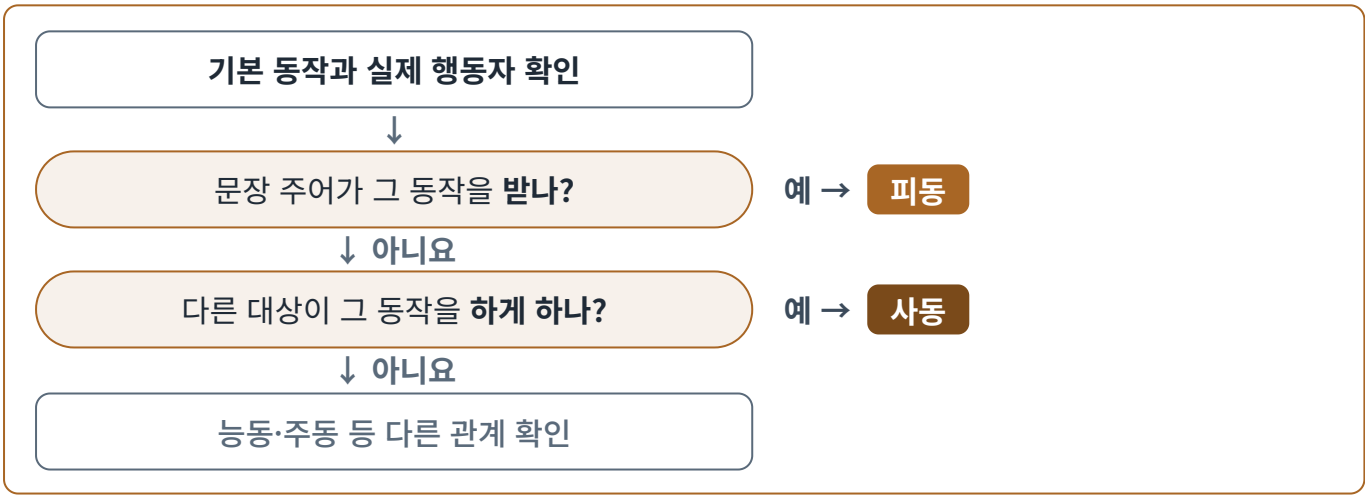
개념ID: 문법07-09 · 문법07-12 · 문법07-14

한 줄 정의

-이-·-히-·-리-·-기-는 피동과 사동에 모두 쓰이므로 주어가 맡은 역할과 문장 뜻으로 구별한다.

핵심 표·도식

문장	주어의 역할	판별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안는 동작을 받음	피동
어머니가 아이에게 인형을 안겼다.	아이가 인형을 안도록 함	사동
산이 안개 너머로 보였다.	보는 동작의 대상이 됨	피동
도우미가 방문객에게 지도를 보였다.	방문객이 지도를 보도록 함	사동



판단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기본 동작은 무엇인가		그 동작을 누가 하는가		문장 주어가 받는가·하게 하는가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이-·-히- 모양만으로 분류한다.	같은 접미사도 문장 뜻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에게가 있으면 언제나 피동이다.	보였다·안겼다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을 확인한다.

비유

택배 송장에서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다른 칸에 적힌다. 피동·사동도 주어가 행동을 받는 쪽인지, 다른 대상이 하게 하는 쪽인지 역할을 나눈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보내는 행위 자체가 사동이라는 뜻은 아니다.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동작을 받음과 하게 함의 관계만 빗댄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동작을 받는 주어 / 하게 하는 주어	피동 / 사동
접미사의 모양 / 문장 속 기능	같을 수 있음 / 문맥에 따라 다름

G-12 · 피동·사동

같은 안기다, 달라지는 역할



피동

안는 사람: 어머니 | 안기는 사람: 아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피동: 아이가 안는 동작을 받음



사동 | 안는 사람: 아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인형을 안겼다.

사동: 어머니가 아이에게 인형을 안게 함

‘안다’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

056 서답형

두 '안겼다'를 피동·사동으로 구별하고, 각 문장에서 안는 동작을 하는 사람을 쓰자.

〈자료〉

(가) 상황: 아버지가 아기를 두 팔로 안았다.

(가) 문장: 아기가 ㉠아버지에게 안겼다.

(나) 상황: 아버지가 아기가 인형을 안도록 했다.

(나) 문장: 아버지가 아기에게 ㉡곰 인형을 안겼다.

항목	답
가	
나	

057 선택형

두 문장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자료〉

(가) 문장: 높은 탑이 ㉠멀리서도 보였다.

(나) 문장: 안내원이 관람객에게 ㉡사진을 보였다.

① 가는 사동, 나는 피동이다.

② 가는 피동, 나는 사동이다.

③ -이-가 있으므로 둘 다 사동으로만 읽힌다.

④ 나에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사동이 아닌 능동으로만 보아야 한다.

⑤ 에게가 있는 나만 피동이다.

답 ( )

058 서답형

두 '읽혔다'를 분류하고, 읽는 주체를 쓰자.

〈자료〉

(가) 문장: 그 동화가 여러 ㉠학생에게 읽혔다.

(나) 상황: 선생님이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도록 했다.

(나) 문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동화를 읽혔다.

항목	답
가	
나	

059 선택형

친구의 판단을 고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문장: 누나가 동생에게 간식을 ㉠먹였다.

친구: 에게가 있으므로 누나가 먹음을 당한 피동이야.

① 누나가 동생이 간식을 먹게 한 사동이며, 에게만으로 피동을 판별할 수 없다.

② 먹이다의 -이-가 있으므로 주어 누나가 동작을 받는 피동이다.

③ 에게는 시키는 사람이므로 동생이 누나에게 간식을 먹게 한 것이다.

④ 문장에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은 불가능하다.

⑤ 간식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사동이 아닌 능동으로만 분류한다.

답 ( )

060 서답형

주어진 ‘보였다’를 그대로 사용해 피동문과 사동문을 하나씩 만들자. 안내 조건을 모두 지키자.

〈자료〉

항목	조건
피동문	무지개를 주어로 삼기
사동문	동생이 수아에게 그림을 보도록 한 뜻으로 쓰기

항목	답
피동문	
사동문	

S4 인용·부정과 종합 적용

인용 D1 말을 그대로 옮길까, 뜻을 전달할까?

개념ID: 문법07-01 · 문법07-15

한 줄 정의

직접 인용은 원래 말을 그대로 가져오고, 간접 인용은 그 뜻을 유지하며 전달하는 사람의 문장으로 바꾼다.

핵심 표·도식

구분	예	표현의 처리
원래 말	언니: “나는 준비가 끝났어.”	언니가 말함
직접 인용	언니가 “나는 준비가 끝났어.”라고 말했다.	원래 말투 보존
간접 인용	언니가 자신은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나·끝났어를 전달 관점에 맞춤

원래 문장	간접 인용 예	유지할 기능
평서	간다고·작다고·학생이라고 말했다	진술
의문	왔냐고·작으냐고·가느냐고 물었다	물음
명령	앉으라고 말했다	행동 요구
청유	함께 앉자고 말했다	함께하자는 제안

라고는 모두 같을까?

구별	구성	예
직접 인용의 조사	(이)라고	“서둘러.”라고 / “휴식 중”이라고
명령의 간접 인용	명령형 -(으)라 + 고	서두르라고 말했다
이다의 간접 인용	이-(서술격 조사 어간) + -라 + 고	학생이라고 말했다

판단 순서

1단계 원래 뜻·종결 기능 확인 → **2단계** 직접 보존인지 간접 전달인지 결정 → **3단계** 표지·어미·지시 표현 확인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따옴표만 지우면 간접 인용이다.	어미·대명사 등 필요한 표현도 함께 조정한다.
라고가 보이면 모두 직접 인용이다.	명령 간접 인용과 이다의 활용에서도 라고가 나타난다.
내용은 바꾸어도 말투만 같으면 직접 인용이다.	직접 인용은 원래 내용과 표현을 보존한다.

비유

직접 인용은 녹음 재생, 간접 인용은 뜻을 살린 전달 메모와 비슷하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전달 메모라도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와 원래 뜻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따옴표를 지우기 / 간접 인용으로 바꾸기	말투·대명사 등 필요한 표현도 함께 조정
직접 인용의 (이)라고 / 명령 간접 인용의 -(으)라고	조사 / 명령형 어미와 고의 결합

061 선택형

원래 말을 그대로 보존한 직접 인용은?

〈자료〉

원래 말: 지우 — 오늘 기분이 좋아.

① 지우가 오늘 기분이 좋냐고 물었다.

② 지우가 “오늘 기분이 좋아.”라고 말했다.

③ 지우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④ 지우가 “오늘 기분이 좋아.”고 말했다.

⑤ 지우가 “오늘 기분이 나빠.”라고 말했다.

답 ( )

062 서답형

빈칸에 알맞은 간접 인용 표현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자.

〈자료〉

기호	원래 말	전달할 문장
가	동생: “비가 와.”	동생이 비가 _____ 말했다.
나	지우가 내게: “준비가 끝났니?”	지우가 내게 준비가 _____ 물었다.
다	형이 내게: “의자에 앉아.”	형이 내게 의자에 _____ 말했다.
라	친구가 내게: “같이 걷자.”	친구가 내게 같이 _____ 말했다.

항목	답
가	
나	
다	
라	

063 선택형

두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가) 문장: 누나가 ㉠“서둘러.”라고 말했다.

(나) 문장: 누나가 ㉡서두르라고 말했다.

① 라고가 보이므로 둘 다 직접 인용이다.

② 나는 누나가 서두르겠다는 자기 의지를 말한 것이다.

③ 가는 따옴표가 있으므로 간접 인용이다.

④ 나의 -라는 청유를 나타낸다.

⑤ 가는 직접 인용, 나는 명령 내용을 전달한 간접 인용이다.

답 ( )

064 서답형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말을 전달한다. 원래 뜻을 살려 간접 인용문을 완성하자.

〈자료〉

원래 말: 하린이가 "㉠나는 이 모둠의 발표자야."라고 말했다.

조건: '나는'을 '자신이'로 바꾸고, '하린이가 _____ 말했다.'로 쓰자.

항목	답
간접 인용문	

065 선택형

친구가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한 뜻을 유지한 간접 인용은?

〈자료〉

문장: 친구가 내게 "㉠함께 화단을 가꾸자."라고 말했다.

① 친구가 내게 함께 화단을 가꾸자고 말했다.

② 친구가 내게 화단을 가꿨냐고 물었다.

③ 친구가 혼자 화단을 가꿨다고 말했다.

④ 친구가 내게 혼자 화단을 가꾸라고 말했다.

⑤ 친구가 내게 화단을 가꾸지 말라고 말했다.

답 ( )

인용 D2 말을 전하는 자리가 바뀌면?

개념ID: 문법07-15

> **한 줄 정의**
> **간접 인용에서는 누가·언제·어디서 전달하는지에 맞추어 사람·시간·장소 표현을 조정한다.**

핵심 표·도식

수요일 도서실에서 서윤이가 “나는 내일 이곳에서 책을 빌릴 거야.”라고 말했다. 친구가 목요일 교실에서 전한다.

원래 표현	가리키는 것	전달할 때의 표현
나	서윤이	서윤이 또는 자신
내일	목요일	오늘 또는 목요일
이곳	도서실	도서실

간접 인용 변환 점검표

점검 항목	바뀌는 예	바뀌지 않는 뜻·예
① 따옴표·인용 표지	“끝났어.”라고 → 끝났다고	준비가 끝났다는 내용
② 종결 어미	앉아. → 앉으라고	앉으라는 요구
③ 사람	나 → 서윤이·자신	말하는 자리가 달라도 서윤이는 같은 사람
④ 시간	수요일의 내일 → 목요일의 오늘	같은 수요일에 전달하면 내일 유지
⑤ 장소	도서실의 이곳 → 도서실	같은 도서실에서 전달하면 이곳 유지

서윤이가 오늘 도서실에서 책을 빌릴 것이라고 말했다.

판단 순서

1단계 원래 화자·날짜·장소 기록 → **2단계** 전달자의 화자·날짜·장소 비교 → **3단계** 같은 대상을 가리키게 표현 조정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간접 인용이면 내일을 반드시 바꾼다.	같은 날 전달하면 내일을 유지할 수 있다.
원래 말의 나는 언제나 전달자이다.	원래 말한 사람을 가리키도록 조정한다.
이곳을 전달자가 서 있는 곳으로 바꾼다.	원래 가리킨 장소를 유지한다.
높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옮긴다.	전달 관점에서 높일 대상을 확인한다.

비유

지도 앱의 현재 위치가 보는 사람의 자리를 기준으로 바뀌듯 나·오늘·이곳도 말하는 자리가 기준이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실제 약속 날짜·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조정한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원래 말의 나 / 전달자의 나	가리키는 사람이 다를 수 있음
시간 표현의 변화 / 약속 시간의 변화	같은 시간을 새 기준으로 표현 / 실제 사건 시간을 변경

G-14 · 인용

나·내일·이곳의 기준점



수요일 도서실: 서윤이의 말

“나는 내일 이곳에서
책을 빌릴 거야.”

① 나 → 서윤이
② 내일 → 목요일
③ 이곳 → 도서실



목요일 교실: 친구가 전달

서윤이가 오늘 도서실에서
책을 빌릴 것이라고 말했다.

① 서윤이: 같은 사람
② 오늘: 같은 목요일
③ 도서실: 같은 장소

실제 사람·날짜·장소는 유지
달라진 것은 말을 전하는 날짜·장소
책을 실제로 빌렸다는 뜻까지 단정하지 않음

066 서답형

빈칸에 들어갈 사람과 시간 표현을 쓰자. '오늘·내일·어제' 중 알맞은 말을 사용하자.

〈자료〉

상황: 월요일에 민서가 지우에게 말했다. 화요일에 지우가 다른 친구에게 전달한다.

원래 말: "㉠나는 내일 수영장에 갈 거야."

전달문: (사람)이 (시간) 수영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목	답
사람	
시간	

067 선택형

조건에 맞는 간접 인용은?

〈자료〉

상황: 하윤이 옆에 있던 준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다른 친구에게 전한다.

원래 말: 하윤이 — "㉠나는 내일 일찍 올 거야."

① 하윤이가 어제 일찍 왔다고 말했다.

② 하윤이가 일찍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 준서가 내일 일찍 올 것이라고 말했다.

④ 하윤이가 내일 일찍 올 것이라고 말했다.

⑤ 하윤이가 오늘 일찍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답 ( )

068 서답형

장소를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꾸어 간접 인용문을 쓰자. '이곳·그곳·저곳'은 쓰지 말자.

〈자료〉

상황: 과학실에서 수빈이가 말했다. 잠시 뒤 복도로 나온 친구가 다른 학생에게 전한다.

원래 말: "㉠나는 이곳에서 기다릴게."

조건: '수빈이가 _____ 말했다.'로 쓰자.

항목	답
간접 인용문	

069 선택형

지시 대상이 헷갈리지 않게 뜻을 유지한 전달문은?

〈자료〉

상황: 유나가 민호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제삼자가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밝히며 전달한다.

원래 말: "㉠내가 네 우산을 가져왔어."

① 유나가 민호의 우산을 버렸다고 말했다.

② 민호가 민호의 우산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③ 민호가 유나의 우산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④ 유나가 유나의 우산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⑤ 유나가 민호의 우산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답 ( )

070 서답형

잘못된 전달문에서 틀린 두 표현을 고쳐 문장 전체를 쓰자.

〈자료〉

상황: 금요일에 지민이가 말했다. 토요일에 다온이가 친구에게 잘못 전했다.

원래 말: "㉠나는 내일 미술관에 갈 거야."

잘못된 전달문: 다온이가 내일 미술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 지민이의 말임을 밝히고, 전달하는 날을 가리키는 시간 부사를 쓰자.

항목	답
고친 전달문	

부정 D3 안 했을까, 못 했을까?

개념ID: 문법07-16

> **한 줄 정의**
> **부정 표현은 사실·의지·능력·상황 등을 부정하며, 형식과 뜻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핵심 표·도식

갈래	짧은 부정	긴 부정	주로 나타내는 뜻
안 부정	안 웃는다	웃지 않는다	단순·의지 부정
못 부정	못 웃는다	웃지 못한다	능력·상황의 제약
말다 부정	별도 짧은 형식 없음	낙서하지 마라·낙서하지 말자	명령·청유의 금지

의미	예	판단 근거
단순 부정	방이 안 넓다.	상태가 그렇지 않음
의지 부정	오늘은 과자를 안 먹겠다.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함
능력 부정	문이 잠겨 안으로 못 들어갔다.	외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음

판단 순서

1단계 안·못·말다와 표현 형식 확인 → **2단계** 의지·능력·외부 상황 확인 → **3단계** 형식과 뜻을 나누어 기록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안은 언제나 하기 싫어서 안 함이다.	안 넓다는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이다.
못은 언제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외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형용사에는 어떤 못 부정도 불가능하다.	자세하지 못하다는 기대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안·못이 없으면 부정의 뜻도 없다.	모르다·없다·아니다 자체도 부정 뜻을 나타낸다.

비유

문 앞의 세 장면을 비교하자. ‘문이 안 열려 있다’는 상태, ‘열 수 있지만 안 열겠다’는 선택, ‘잠겨서 못 열겠다’는 제약이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이 장면은 부정 이유의 차이를 보인다. 못 부정은 열쇠를 다루지 못하는 능력 부족도 포함한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짧다·길다 / 단순·의지·능력	표현 형식 / 문맥 속 의미
안 부정 / 의지 부정	안 부정에는 단순 부정도 포함됨

G-15 · 부정

문 앞에서 갈리는 세 가지 부정



상태의 단순 부정

문이 안 열려 있다

그냥 닫혀 있는 상태



의지 부정

열 수 있지만 안 열겠다

열 수 있어도 스스로 선택



상황 제약에 따른 능력 부정

잠겨서 못 열겠다

자물쇠 때문에 열 수 없음

못 부정에는 능력 부족도 포함

071 선택형

자료 속 ‘못 갔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가고 싶었지만 폭설로 길이 막혔다.

문장: 공연장에 ㉠못 갔다.

① 못이 있으므로 반드시 걷는 기술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② 공연장에 가지 말라고 명령한 금지이다.

③ 외부 상황이 행동을 막은 능력 부정이다.

④ 실제로 공연장에 갔다는 긍정이다.

⑤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의지 부정이다.

답 ( )

---

072 서답형

각 안 부정을 단순 부정·의지 부정으로 나누고 근거를 적자.

〈자료〉

(가) 문장: 이 가방은 ㉠안 무겁다.

(나) 상황: 스스로 결정한다.

(나) 문장: 나는 건강을 위해 오늘 탄산음료를 ㉡안 마시겠다.

항목	답
가	
나	

073 선택형

짧은 부정을 긴 부정으로 바꾸며 주어진 뜻을 유지한 것은?

〈자료〉

문장: 목이 아파 노래를 ㉠못 불렀다.

① 목이 아파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② 목이 아파 노래를 부르게 했다.

③ 목이 아파 노래를 부르지 말자.

④ 목이 아파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⑤ 목이 아파 노래를 잘 불렀다.

답 ( )

074 서답형

긍정 문장을 금지의 뜻으로 바꾸자. 문장의 종류와 함께 행동하는지 여부를 유지하자.

〈자료〉

(가) 문장: 친구의 물건을 ㉠만져라.

(나) 문장: 우리 함께 복도에서 ㉡뛰자.

항목	답
가	
나	

075 선택형

부정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가) 문장: 나는 그 사실을 ㉠모른다.

(나) 상황: 기대보다 부족함을 말한다.

(나) 문장: 설명이 ㉡자세하지 못하다.

① 가는 낱말 자체의 부정 뜻, 나는 기대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② 나는 설명이 스스로 자세하기 싫어한다는 의지 부정이다.

③ 못 부정은 어떤 형용사와도 어떤 형태로도 쓸 수 없다.

④ 가는 안이 없으므로 부정의 뜻이 전혀 없다.

⑤ 가는 금지 명령이고 나는 청유이다.

답 ( )

부정 D4 어느 부분을 부정한 말일까?

개념ID: 문법07-17

한 줄 정의

부정 범위는 문장에서 부정이 미치는 부분이며, 강조와 앞뒤 문맥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다.

핵심 표·도식

부정의 범위에 따라 뜻이 갈리는 것 = 부정문의 중의성

분명히 하려는 뜻	뜻을 밝힌 문장
행위자	선반을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언니이다.
대상	내가 만든 것은 선반이 아니라 의자이다.
시간	나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선반을 만들었다.

뜻	이름	뜻을 분명히 한 문장
아무도 오지 않음	전체 부정	학생들 중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원이 온 것은 아님	부분 부정	학생들이 모두 오지는 않았다. 보조사 는으로 부분 부정을 드러냄

중의적인 문장: 학생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

판단 순서

1단계	→	2단계	→	3단계
부정되는 부분과 강조 확인		전체 부정·부분 부정 구별		보조사·대조 표현·인원수로 뜻 확정

오해와 바른 판단

오해 ×	바른 판단 ✓
모두 오지는 않았다면 정확히 두 명이 왔다.	이 문장만으로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다.
배를 먹지 않았으니 반드시 사과를 먹었다.	특정한 다른 행동·이유는 자료가 더 있어야 알 수 있다.

비유

사진에서 지우개로 지우는 부분에 따라 남는 정보가 달라지듯, 부정이 미치는 부분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한계: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다 — 한 부분을 지웠다고 빈자리에 특정한 다른 그림이 생기지는 않는다. 부정 뒤의 대안은 문맥으로 확인한다.

헷갈리는 짝

구별할 것	확인할 내용
전부가 아님 / 아무도 아님	전원이라는 판단을 부정 / 모든 대상의 행동을 부정
부정한 내용 / 새로 긍정할 내용	전자가 있다고 후자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음

G-16 · 부정

모두가 아닌 것과 아무도 아닌 것

전체 부정

모임 총원 4명

① 자리 아직 오지 않음	② 자리 아직 오지 않음
③ 자리 아직 오지 않음	④ 자리 아직 오지 않음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0명 도착

부분 부정

모임 총원 4명

 도착	 도착
③ 자리 아직 오지 않음	④ 자리 아직 오지 않음

모두 오지는 않았다

2명 도착의 한 예

부분 부정 문장만으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음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능한 상황 중 하나

076 서답형

자료의 상황에 맞게 두 방식으로 고쳐 쓰자. 첫 답은 보조사 '는'을 넣어 부분 부정으로, 둘째 답은 제출·미제출 인원수를 밝혀 쓰자.

〈자료〉

상황: 모둠원은 다섯 명이다. 세 명은 발표 자료를 냈고 두 명은 내지 않았다.

고칠 문장: 모둠원들이 ㉠모두 발표 자료를 내지 않았다.

항목	답
보조사 는을 넣은 부분 부정	
인원수를 밝힌 문장	

077 선택형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설명은?

〈자료〉

상황: 아래 문장 외의 상황은 주어지지 않았다.

문장: 수아는 ㉠딸기를 먹지 않았다.

① 수아는 반드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② 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은 반드시 딸기를 먹었다.

③ 수아는 반드시 포도를 먹었다.

④ 수아는 반드시 딸기를 싫어한다.

⑤ 수아가 딸기를 먹었다는 내용은 부정되지만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답 ( )

078 서답형

각 문장이 주로 대조하며 부정하는 부분을 '행위자·대상·시간' 중에서 고르자.

〈자료〉

(가) 문장: 편지를 보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동생이다.

(나) 문장: 내가 보낸 것은 ㉡편지가 아니라 엽서이다.

(다) 문장: 나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 편지를 보냈다.

항목	답
가	
나	
다	

079 선택형

자료를 함께 분석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료〉

상황: 화자가 선생님에게 어제의 일을 전한다.

문장: "할아버지께서는 어제 여덟 시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① 첫 문장은 할아버지만 높이므로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이 없다.

② 첫 문장은 과거이므로 진행상을 나타낼 수 없다.

③ 첫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주무시는 주체이다.

④ 첫 문장에는 주체·상대 높임과 과거의 진행이 나타나고, 둘째 문장에는 긴 안 부정이 나타난다.

⑤ 둘째 문장의 -지 않았습니다는 긴 못 부정이다.

답 ( )

080 서답형

자료의 전달문을 완성한 뒤, 사동의 구성과 부정의 형식을 쓰자. 이 말만으로 지우가 실제로 달렸는지 알 수 있는지도 이유와 함께 쓰자.

〈자료〉

상황: 같은 날 지우의 말을 친구에게 간접 인용한다.

원래 말: 지우 — "감독님이 ㉠나를 오늘 달리게 하지 않으셨어."

조건: 원래 말의 나를 자신으로 바꾼다. '오늘'은 그대로 쓰고, 감독님을 높이는 -시-도 유지한다. '지우는 감독님이 _____ 말했다.'로 완성하자.

항목	답
간접 인용문	
사동을 나타내는 구성	
부정의 형식	
문장만으로 지우가 실제로 달렸는지 알 수 있는가	

S5 정답 한눈표

서답형은 모범 답의 요약이다.

문항	정답
표현-001	⑤
표현-002	가: 평서문 / 나: 명령문 / 다: 감탄문
표현-003	④
표현-004	가: 책상을 옮겨라. / 나: 책상을 옮기자.
표현-005	③
표현-006	가의 갈래: 설명 의문문 / 가의 답 예: 운동장 오른쪽에 있어. / 나의 갈래: 판정 의문문 / 나의 답 예: 응, 열렸어.
표현-007	④
표현-008	문장 형식: 의문 / 실제 의도: 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요청
표현-009	③
표현-010	가: O: 이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 나: X: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음을 강조한다.
표현-011	①
표현-012	㉠: 할아버지·주체 높임 / ㉡: 의사 선생님·객체 높임 / ㉢: 말을 듣는 어머니·상대 높임
표현-013	④
표현-014	고친 문장: 제가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 높임법: 객체 높임
표현-015	③
표현-016	가: 직접 주체 높임·어르신 / 나: 간접 주체 높임·어르신
표현-017	⑤
표현-018	고친 문장: 손님, 주문하신 빵이 나왔습니다. / 주문하신을 유지하는 이유: 주문한 주체인 손님을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표현-019	①
표현-020	가: O / 나: X / 나를 고친 문장: 손님, 이 상품은 품절이에요.
표현-021	⑤
표현-022	가: 하오체·격식체 / 나: 하게체·격식체 / 다: 해체·비격식체

문항	정답
표현-023	②
표현-024	가: 저는 지금 출발합니다. / 나: 저는 지금 출발해요.
표현-025	①
표현-026	가: 과거·어제 또는 샀다의 -았- / 나: 현재·지금 / 다: 미래·모레 또는 갈 것이다
표현-027	④
표현-028	가: 의지·자신의 행동을 다짐함 / 나: 추측·단서로 동생이 잠들었을 것이라 짐작함
표현-029	⑤
표현-030	㉠: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 / ㉡: 형용사의 현재 관형사형
표현-031	②
표현-032	오늘 말하는 때 기준: 과거·절대 시제 / 어제 말을 건 때 기준: 현재·상대 시제
표현-033	④
표현-034	이른 순서: 만남(일요일) → 떠남(월요일) → 발화(화요일) / 만난 때 기준의 떠남: 미래·상대 시제 / 말하는 때 기준의 떠남: 과거·절대 시제
표현-035	③
표현-036	가: 과거·진행상 / 나: 현재·완료상(결과 상태의 지속)
표현-037	③
표현-038	진행상으로 읽히는 상황: 민수가 지금 한 팔을 소매에 넣으며 외투를 입는 중이다. / 완료상으로 읽히는 상황: 민수가 아까 외투를 다 입었고 지금도 벗지 않은 채 서 있다.
표현-039	②
표현-040	가: O / 나: X / 나를 고친 판단: 현재 시제이며, 앉은 결과가 지속되는 완료상이다.
표현-041	④
표현-042	피동문: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
표현-043	①
표현-044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 칭찬받았다 / 판단: X / 이유: 칭찬을 받는 긍정적인 일도 피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045	②
표현-046	㉠: 피동·찢다 / ㉡: 상태 변화·따뜻하다
표현-047	②

문항	정답
표현-048	㉠에서 더해진 뜻: 사동·밝게 하다 / ㉡에서 더해진 뜻: 피동·밝히는 동작을 받다 / 이중 피동인지: 아니다. 앞의 -히-가 이 예에서는 사동이기 때문이다.
표현-049	③
표현-050	가: O / 나: X / 나를 고친 판단: 형용사 뒤의 -어지다는 상태 변화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품사와 뜻을 확인해야 한다.
표현-051	⑤
표현-052	사동문: 감독이 선수들에게 운동장을 달리게 했다.
표현-053	②
표현-054	사동문: 민수가 음악 소리를 낮추었다. / 변한 대상과 상태: 음악 소리의 크기가 작아졌다.
표현-055	③
표현-056	가: 피동·안는 사람은 아버지 / 나: 사동·안는 사람은 아기
표현-057	②
표현-058	가: 피동·여러 학생이 읽음 / 나: 사동·학생이 읽음
표현-059	①
표현-060	피동문: 무지개가 보였다. / 사동문: 동생이 수아에게 그림을 보였다.
표현-061	②
표현-062	가: 온다고 / 나: 끝났냐고 또는 끝났느냐고 / 다: 앉으라고 / 라: 걷자고
표현-063	⑤
표현-064	간접 인용문: 하린이가 자신이 이 모둠의 발표자라고 말했다.
표현-065	①
표현-066	사람: 민서 / 시간: 오늘
표현-067	④
표현-068	간접 인용문: 수빈이가 과학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표현-069	⑤
표현-070	고친 전달문: 지민이가 오늘 미술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071	③
표현-072	가: 단순 부정·가방의 무거운 상태를 부정함 / 나: 의지 부정·스스로 마시지 않기로 함
표현-073	①

문항	정답
표현-074	가: 친구의 물건을 만지지 마라. / 나: 우리 함께 복도에서 뛰지 말자.
표현-075	①
표현-076	보조사 는을 넣은 부분 부정: 모둠원들이 모두 발표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 인원수를 밝힌 문장: 모둠원 다섯 명 중 세 명은 발표 자료를 냈고 두 명은 내지 않았다.
표현-077	⑤
표현-078	가: 행위자 / 나: 대상 / 다: 시간
표현-079	④
표현-080	간접 인용문: 지우는 감독님이 자신을 오늘 달리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 사동을 나타내는 구성: 긴 사동(-게 하다) / 부정의 형식: 긴 안 부정--지 않다 / 문장만으로 지우가 실제로 달렸는지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감독님이 달리게 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다.

S6 정답과 해설

선택형의 O/X는 선지의 타당성을 뜻한다. 서답형은 발문의 조건과 뜻을 지킨 자연스러운 표현도 인정한다.

표현-001 해설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느낌이나 깨달음의 표현이 아니다.
②	X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요구가 없다.
③	X	완료된 일을 진술한 문장이 아니다.
④	X	말하는 이도 함께하는 청유이다.
⑤	O	'같이'와 '-자'가 함께하는 행동을 제안한다.

과정 한 줄: 참여하는 사람 확인 → -자 확인 → 청유

핵심 한 줄: 청유는 말하는 이도 함께하는 행동을 제안한다.

표현-002 해설

정답: 가: 평서문 / 나: 명령문 / 다: 감탄문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평서문
나	명령문
다	감탄문

가는 사실을 진술하고, 나는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하며, 다는 맑은 하늘을 보고 느낀 감탄을 드러낸다. 종결 어미와 문장의 기능을 함께 근거로 삼는다.

과정 한 줄: 끝맺음 확인 → 진술·요구·감탄 구별

핵심 한 줄: 종결 어미와 문장의 기능을 함께 확인한다.

표현-003 해설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아이도 함께 앉을 생각이라고 명시했다.
②	X	해요체의 같은 형태가 여러 종결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
③	X	청유와 상대 높임은 함께 실현될 수 있다.
④	O	함께 앉을 생각이라는 상황이 청유의 뜻을 뒷받침한다.
⑤	X	마침표로 끝나도 청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과정 한 줄: 함께 앉는 상황 확인 → -아요의 기능 판단

핵심 한 줄: 같은 종결 형태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표현-004 해설

정답: 가: 책상을 옮겨라. / 나: 책상을 옮기자.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책상을 옮겨라.
나	책상을 옮기자.

가는 '옮기-+-어라'가 결합해 '옮겨라'가 되고, 나는 '옮기-+-자'가 결합한다. '함께 책상을 옮기자.'처럼 조건과 뜻을 지킨 답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누가 행동할지 구별 → 지정된 종결 어미 결합

핵심 한 줄: 문장을 바꿀 때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확인한다.

표현-005 해설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어느 문장도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X	사실을 진술했으며 감탄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③	O	-다와 -니의 차이로 진술과 물음이 나뉜다.
④	X	함께하자는 청유가 아니다.

선지	판정	이유
⑤	X	도착했니에도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남아 있다.

과정 한 줄: 공통 사건 확인 → 끝맺음의 기능 비교

핵심 한 줄: 종결 기능이 달라져도 사건의 시간은 같을 수 있다.

표현-006 해설

정답: 가의 갈래: 설명 의문문 / 가의 답 예: 운동장 오른쪽에 있어. / 나의 갈래: 판정 의문문 / 나의 답 예: 응, 열렸어.

답란 항목	모범 답
가의 갈래	설명 의문문
가의 답 예	운동장 오른쪽에 있어.
나의 갈래	판정 의문문
나의 답 예	응, 열렸어.

가는 방향 정보를 요구한다. 나는 문이 열렸는지 여부를 요구하므로 '아니, 아직 닫혀 있어.'도 가능하다. 실제 장소나 개방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며, 질문이 요구하는 종류의 답이면 인정한다.

과정 한 줄: 요구한 정보 확인 → 갈래 분류 → 그 종류에 맞는 답

핵심 한 줄: 의문문의 종류는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로 구별한다.

표현-007 해설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문맥상 목록을 얻으려는 실제 질문이 아니다.
②	X	힘을 합치는 것을 긍정하는 맥락이다.
③	X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④	O	앞의 격려와 연결되므로 가능성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이다.
⑤	X	실패 사실을 보고한 자료가 없다.

과정 한 줄: 앞의 격려 확인 → 실제 답 요구 여부 판단

핵심 한 줄: 수사 의문문의 뜻은 대화 맥락으로 확인한다.

표현-008 해설

정답: 문장 형식: 의문 / 실제 의도: 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요청

답란 항목	모범 답
문장 형식	의문
실제 의도	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요청

-겠니로 물음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 바라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다. 부탁한다고 해서 종결 형식까지 명령형으로 바뀌었다고 쓰지 않는다.

과정 한 줄: 끝맺음 확인 → 상황에서 원하는 행동 확인

핵심 한 줄: 의문 형식과 요청 의도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표현-009 해설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예·아니요만으로는 위치를 알려 줄 수 없다.
②	X	함께 가자는 제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O	여행자는 모르는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④	X	어디는 위치를 묻는 말이다.
⑤	X	높임법과 실제 답의 요구 여부는 다른 기준이다.

과정 한 줄: 모르는 정보 확인 → 높임과 의문 갈래 분리

핵심 한 줄: 높임 여부가 의문문의 종류를 결정하지 않는다.

표현-010 해설

정답: 가: O: 이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 나: X: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음을 강조한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O: 이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나	X: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음을 강조한다.

같은 '누가'가 있어도 가는 실제 정보 요청이고, 나는 자료의 상황에서 놀라움과 뜻의 강조이다. 질문 어휘 하나만으로 수사 의문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각 상황의 정보 부족 여부 확인 → 실제 답 필요 여부 판단

핵심 한 줄: 의문사가 같아도 말의 의도는 달라질 수 있다.

표현-011 해설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 표현으로 받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인다.
②	X	드리다가 나타내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은 다르다.
③	X	사진 자체를 높이지 않는다.
④	X	높임 대상은 자료에 제시된 받는 사람이다.
⑤	X	주는 사람인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니다.

과정 한 줄: 드리는 사람·받는 사람 구별 → 객체 확인

핵심 한 줄: 드리다는 받는 대상을 높인다.

표현-012 해설

정답: ㉠: 할아버지·주체 높임 / ㉡: 의사 선생님·객체 높임 / ㉢: 말을 듣는 어머니·상대 높임

답란 항목	모범 답
㉠	할아버지·주체 높임
㉡	의사 선생님·객체 높임
㉢	말을 듣는 어머니·상대 높임

묻는 행동의 주체는 할아버지, 질문이 향하는 대상은 의사 선생님, 이 말을 듣는 이는 어머니이다. ㉠의 께서와 셨에 포함된 -시-가 주체를 높인다. ㉡의 께와 여쭙다의 활용 부분은 객체를 높이고, ㉢의 -어요는 상대를 높인다.

과정 한 줄: 행동의 주체 확인 → 질문의 대상 확인 → 듣는 이 확인

핵심 한 줄: 한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셋으로 나뉠 수 있다.

표현-013 해설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습니다와 주체 높임의 -시-는 다른 요소이다.

선지	판정	이유
②	X	누나는 객체가 아니라 주어이다.
③	X	두 문장의 주어는 모두 누나가이다.
④	O	-다에서 -습니다로 상대 높임이 달라졌다.
⑤	X	돌아온 사건은 그대로 진술된다.

과정 한 줄: 달라진 어미 확인 → 듣는 이와 주체 구별

핵심 한 줄: 정중한 끝맺음이 곧 주체 높임은 아니다.

표현-014 해설

정답: 고친 문장: 제가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 높임법: 객체 높임

답란 항목	모범 답
고친 문장	제가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높임법	객체 높임

'만나다' 대신 '뵈다'를 쓰면 만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인다. '뵀습니다'도 인정한다. '제가 … 만나셨습니다'는 만나는 주체인 자신에게 -시-를 붙이는 고침이므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

과정 한 줄: 만나는 대상 확인 → 뵈다 선택 → 상대 높임 유지

핵심 한 줄: 객체를 높일 때 주체인 자신에게 -시-를 붙이지 않는다.

표현-015 해설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계시다는 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이다.
②	X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은 별도로 실현될 수 있다.
③	O	선생님이 계시는 주체이며 두 표현이 그 주체를 높인다.
④	X	께서는 선생님에 붙었다.
⑤	X	선생님께서는 주어이다.

과정 한 줄: 주어 확인 → 높임 수단과 대상 연결

핵심 한 줄: 주체 높임은 해라체 종결과도 함께 쓰일 수 있다.

표현-016 해설

정답: 가: 직접 주체 높임·어르신 / 나: 간접 주체 높임·어르신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직접 주체 높임·어르신
나	간접 주체 높임·어르신

가는 어르신 자체의 동작을 높인다. 나는 어르신의 신체 일부인 허리의 상태를 통해 어르신을 높인다. 나를 '허리라는 물건을 존경함'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서술하는 대상 확인 → 사람 자체인지 밀접한 부분인지 구별

핵심 한 줄: 간접 높임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높인다.

표현-017 해설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나에서 말씀에 계신다를 쓰지 않는다.
②	X	장소에 있는 할아버지와 말씀의 존재를 반대로 처리했다.
③	X	나의 계시다 역시 말씀의 존재에 맞지 않는다.
④	X	나는 간접 높임에 맞지 않고 가는 높임 표현이 빠졌다.
⑤	O	사람의 장소 존재는 계신다, 말씀의 존재를 통한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가 적절하다.

과정 한 줄: 존재하는 것이 사람인지 말씀인지 구별 → 높임 어휘 선택

핵심 한 줄: 사람이 계신 것과 말씀이 있으신 것을 구별한다.

표현-018 해설

정답: 고친 문장: 손님, 주문하신 빵이 나왔습니다. / 주문하신을 유지하는 이유: 주문한 주체인 손님을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고친 문장	손님, 주문하신 빵이 나왔습니다.
주문하신을 유지하는 이유	주문한 주체인 손님을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나오는 주체는 빵이므로 '나오셨습니다'의 -시-를 뺀다. '주문하신'의 -시-는 주문한 손님을 높이므로 유지한다. 문장 안의 -시-를 일괄적으로 없애면 적절한 높임까지 지우게 된다. 빵은 손님에게 판매하는

물건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간접 주체 높임의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각 서술어의 주체 확인 → 빵에 붙은 -시-만 제거

핵심 한 줄: 높임을 고칠 때 서술어마다 높이는 대상을 확인한다.

표현-019 해설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선생님과 밀접한 신체의 성질을 통해 높임이 실현된다.
②	X	귀는 문장 속 신체 부분이며 듣는 이라는 담화 역할과 다르다.
③	X	귀가는 주어로 쓰였다.
④	X	간접 높임에서 신체 일부의 상태에 -시-가 쓰일 수 있다.
⑤	X	주체 높임의 대상과 실제 듣는 이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과정 한 줄: 귀와 선생님의 관계 확인 → 간접 주체 높임

핵심 한 줄: 신체에 관한 서술이 사람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표현-020 해설

정답: 가: O / 나: X / 나를 고친 문장: 손님, 이 상품은 품절이에요.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O
나	X
나를 고친 문장	손님, 이 상품은 품절이에요.

가는 신체의 성질을 통한 간접 주체 높임이다. 나는 상품의 판매 상태를 높인 표현이므로 품절이에요로 고친다. 손님을 대우하는 -어요는 유지한다.

과정 한 줄: 높임이 향하는 사람 확인 → 사물 자체의 높임 제거

핵심 한 줄: 간접 주체 높임과 상품의 판매 상태를 높이는 표현을 구별한다.

표현-021 해설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요는 듣는 이를 대우하는 표현이다.
②	X	하십시오체는 격식체이다.
③	X	격식성과 높임의 정도를 함께 구별해야 한다.
④	X	해요체도 상대를 두루 높인다.
⑤	O	가는 하십시오체, 나는 해요체로 분류한다.

과정 한 줄: 종결형 확인 → 등급 이름 → 격식성 비교

핵심 한 줄: 상대를 높이는 말투도 격식성이 다를 수 있다.

표현-022 해설

정답: 가: 하오체·격식체 / 나: 하게체·격식체 / 다: 해체·비격식체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하오체·격식체
나	하게체·격식체
다	해체·비격식체

가의 -오는 하오체 평서형, 나의 -세는 하게체 청유형이다. 다의 '가'는 가다의 해체 활용형이다. 등급과 격식성을 함께 맞혀야 한다.

과정 한 줄: 끝맺음 확인 → 등급과 격식성 연결

핵심 한 줄: 상대 높임은 높임 정도와 격식성의 두 기준으로 본다.

표현-023 해설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특수 높임 어휘와 께서가 사라졌다.
②	O	주무시다를 유지하고 -어요가 결합한 해요체로 바꾸었다.
③	X	하오체이므로 해요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선지	판정	이유
④	X	주무시다를 없앴고 해라체로 끝난다.
⑤	X	주체 높임은 유지하지만 해라체이다.

과정 한 줄: 유지할 주체 높임 확인 → 해요체 끝맺음 선택

핵심 한 줄: 문장을 바꿀 때 유지할 높임과 바꿀 높임을 나눈다.

표현-024 해설

정답: 가: 저는 지금 출발합니다. / 나: 저는 지금 출발해요.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저는 지금 출발합니다.
나	저는 지금 출발해요.

자기 행동을 말하므로 '출발하십니다'처럼 자신에게 -시-를 붙이지 않는다. 듣는 이를 대우하는 종결형만 조건에 맞게 바꾼다.

과정 한 줄: 자기 지칭 조정 → 사건 유지 → 지정한 평서형 사용

핵심 한 줄: 상대를 높이면서 자신에게 -시-를 붙이지 않는다.

표현-025 해설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설명문에서 해라체 평서형은 사실을 서술하는 데 쓰인다.
②	X	듣는 이를 대우하는 종결형은 주어가 사물이어도 분석할 수 있다.
③	X	격식체에는 여러 등급이 있다.
④	X	해라체의 전통적 등급은 아주 낮춤이다.
⑤	X	해라체에는 평서형도 있다.

과정 한 줄: 글의 상황 확인 → 해라체 분류 → 실제 태도와 구별

핵심 한 줄: 등급 이름을 사람을 대하는 실제 태도와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표현-026 해설

정답: 가: 과거·어제 또는 샀다의 -았- / 나: 현재·지금 / 다: 미래·모레 또는 갈 것이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과거·어제 또는 샀다의 -았-
나	현재·지금
다	미래·모레 또는 갈 것이다

가의 구입은 발화 이전, 나의 조용한 상태는 발화 시점, 다의 방문은 발화 이후이다. 형용사 '조용하다'에 동사의 -는-이 없다고 현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과정 한 줄: 시간 부사 확인 → 발화시와 사건시 비교

핵심 한 줄: 형용사는 별도의 현재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표현-027 해설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지금이라는 시점이 제시되었다.
②	X	직접 밖에 나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다.
③	X	상태의 추측이며 행동 의지가 아니다.
④	O	지금의 상태를 간접 단서를 바탕으로 짐작한다.
⑤	X	부정 요소가 없다.

과정 한 줄: 지금 확인 → 직접 경험 여부 → 현재 상태의 추측

핵심 한 줄: -겠-이 있어도 현재를 추측할 수 있다.

표현-028 해설

정답: 가: 의지·자신의 행동을 다짐함 / 나: 추측·단서로 동생이 잠들었을 것이라 짐작함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의지·자신의 행동을 다짐함
나	추측·단서로 동생이 잠들었을 것이라 짐작함

같은 -겠-이라도 가는 자기 행동에 대한 다짐, 나는 이미 일어났을 사건에 대한 추측이다. 나의 -겠-을 '잠드는 일이 미래에만 있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주체와 문맥 확인 → 다짐과 짐작 구별

핵심 한 줄: -겠-의 뜻은 주체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표현-029 해설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어미의 현재형과 문맥 속 사건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
②	X	자기 계획을 진술한 평서문이다.
③	X	현재형이나 -(으)ㄹ 것이다 등도 미래 일을 나타낸다.
④	X	내일은 발화 이후이다.
⑤	O	내일이라는 부사와 계획 맥락이 발화 이후를 나타낸다.

과정 한 줄: 시간 부사와 계획 확인 → 형태와 의미 시간 구별

핵심 한 줄: 현재형으로 예정된 미래 일을 말할 수도 있다.

표현-030 해설

정답: ㉠: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 / ㉡: 형용사의 현재 관형사형

답란 항목	모범 답
㉠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
㉡	형용사의 현재 관형사형

접은의 기본형은 동사 접다이며 어제 접는 동작이 일어났다. 붉은의 기본형은 형용사 붉다이며 지금의 성질을 나타낸다. 둘에 -(으)ㄴ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시제를 같게 판단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기본형·품사 확인 → 시간 맥락 비교

핵심 한 줄: -(으)ㄴ은 동사와 형용사에서 시간 해석이 다를 수 있다.

표현-031 해설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본 순간 노래하고 있었다고 명시했다.
②	O	노래와 봄은 어제 동시에 일어났고 오늘보다 앞선다.

선지	판정	이유
③	X	보는 사건은 어제라고 주어졌다.
④	X	두 사건은 발화 이전이며 서로 동시이다.
⑤	X	오늘 노래하는지는 자료로 알 수 없다.

과정 한 줄: 노래·봄·발화의 때 배치 → 기준별 분류

핵심 한 줄: 같은 사건도 기준에 따라 과거이면서 현재일 수 있다.

표현-032 해설

정답: 오늘 말하는 때 기준: 과거·절대 시제 / 어제 말을 건 때 기준: 현재·상대 시제

답란 항목	모범 답
오늘 말하는 때 기준	과거·절대 시제
어제 말을 건 때 기준	현재·상대 시제

책 읽기는 발화 이전에 일어났으며 말을 건 사건과 겹친다. '과거'나 '현재'만 적기보다 기준과 분류를 함께 적어 두 판단이 모순이 아님을 확인한다.

과정 한 줄: 발화시와 말을 건 때 구분 → 읽는 때 비교

핵심 한 줄: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는 서로 다른 기준의 판단이다.

표현-033 해설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말하는 때와 완성한 때를 혼동했다.
②	X	자료에서 하루 차이가 난다.
③	X	다른 사건과의 선후에 따라 과거·현재·미래를 나눌 수 있다.
④	O	완성이 보여 주기보다 하루 앞선다고 제시했다.
⑤	X	완성은 기준 사건보다 이전이다.

과정 한 줄: 완성일·보여 준 날 비교 → 기준 사건보다 앞섬

핵심 한 줄: 상대 시제에서도 기준 사건보다 앞서면 과거이다.

표현-034 해설

정답: 이른 순서: 만남(일요일) → 떠남(월요일) → 발화(화요일) / 만난 때 기준의 떠남: 미래·상대 시제 / 말하는 때 기준의 떠남: 과거·절대 시제

답란 항목	모범 답
이른 순서	만남(일요일) → 떠남(월요일) → 발화(화요일)
만난 때 기준의 떠남	미래·상대 시제
말하는 때 기준의 떠남	과거·절대 시제

떠남은 일요일의 만남보다 뒤이지만 화요일의 발화보다 앞이다. 관형사형 -ㄹ이 있다는 이유로 떠남을 화요일 이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요일을 그대로 적어 같은 순서를 나타내도 인정한다.

과정 한 줄: 세 날짜 배열 → 두 기준에 떠남을 각각 비교

핵심 한 줄: 상대적으로 미래인 사건이 발화시 기준으로는 과거일 수 있다.

표현-035 해설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촬영 시점은 어제로 명시되어 있다.
②	X	관형절에서도 관형사형 어미와 문맥으로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
③	O	안긴절의 현재형이 과거의 촬영 사건과 동시를 나타낸다.
④	X	잠든 상태와 촬영이 겹친다고 제시했다.
⑤	X	자료는 촬영 순간 잠들어 있었다고 했다.

과정 한 줄: 촬영 순간의 상태 확인 → 오늘 상태와 분리

핵심 한 줄: 안긴절의 현재형에서 오늘의 지속을 추론하지 않는다.

표현-036 해설

정답: 가: 과거·진행상 / 나: 현재·완료상(결과 상태의 지속)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과거·진행상
나	현재·완료상(결과 상태의 지속)

가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쓰는 동작이 진행 중이다. 나는 걸어 놓은 결과가 지금 유지된다. '과거니까 완료' 또는 '현재니까 진행'으로 묶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시간 확인 → 동작 진행과 결과 지속 구별

핵심 한 줄: 시제와 동작상은 각각 판단한다.

표현-037 해설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끼는 동작은 아까 끝났다고 주어졌다.
②	X	벗지 않았다고 했다.
③	O	이미 끼는 동작을 마쳤고 착용 상태가 남아 있다.
④	X	착용 동사의 -고 있다는 결과 지속도 나타낸다.
⑤	X	현재 착용 상태가 명시되었다.

과정 한 줄: 끼는 동작의 완료 확인 → 남은 상태 확인

핵심 한 줄: 착용 표현의 -고 있다는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표현-038 해설

정답: 진행상으로 읽히는 상황: 민수가 지금 한 팔을 소매에 넣으며 외투를 입는 중이다. / 완료상으로 읽히는 상황: 민수가 아까 외투를 다 입었고 지금도 벗지 않은 채 서 있다.

답란 항목	모범 답
진행상으로 읽히는 상황	민수가 지금 한 팔을 소매에 넣으며 외투를 입는 중이다.
완료상으로 읽히는 상황	민수가 아까 외투를 다 입었고 지금도 벗지 않은 채 서 있다.

진행상은 입는 과정 자체가 진행 중임을, 완료상은 입기를 마친 뒤 착용 상태가 지속됨을 드러내면 인정한다. 두 상황 모두 '지금 외투를 입는다'처럼 원문을 반복하는 답은 구별 근거가 부족하다.

과정 한 줄: 입는 과정과 착용 결과 구별 → 구별되는 상황 작성

핵심 한 줄: 같은 문장도 상황이 동작상을 분명하게 한다.

표현-039 해설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열려 있었다는 열린 상태의 지속이며 반복을 뜻하지 않는다.
②	O	어제의 도착 시점에 창문이 열린 상태였음을 나타낸다.
③	X	상태의 지속도 과거 시점에 놓일 수 있다.
④	X	이미는 기준보다 앞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⑤	X	시제와 동작상은 별개의 기준이다.

과정 한 줄: 도착한 과거 시점 확인 → 열린 상태의 지속

핵심 한 줄: 완료된 결과의 지속도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040 해설

정답: 가: O / 나: X / 나를 고친 판단: 현재 시제이며, 앉은 결과가 지속되는 완료상이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O
나	X
나를 고친 판단	현재 시제이며, 앉은 결과가 지속되는 완료상이다.

나의 지금은 상태가 유지되는 때를 말하는 때에 놓는다. 앉는 동작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장 전체의 시제를 과거라고 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각 판단의 시간 기준 확인 → 동작상과 시제 분리

핵심 한 줄: 동작의 완료와 과거 시제는 같은 말이 아니다.

표현-041 해설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누가 누구를 잡았는지는 같고 서술의 중심이 달라진다.
②	X	경찰에게는 동작 주체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③	X	잡히다는 이 문장에서 피동을 나타낸다.

선지	판정	이유
④	O	도둑을이 도둑이로 바뀌고 잡았다가 잡혔다로 바뀌었다.
⑤	X	잡는 주체는 두 문장 모두 경찰이다.

과정 한 줄: 동작 주체·대상 확인 → 주어의 역할 비교

핵심 한 줄: 능동과 피동은 같은 사건을 다른 대상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042 해설

정답: 피동문: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

답란 항목	모범 답
피동문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

나뭇가지를이 주어 나뭇가지가로, 바람이가 부사어 바람에로 바뀐다. 서술어는 꺾이다의 과거형 꺾였다이다. 단순히 나뭇가지를 앞으로 옮긴 문장은 피동으로 바꾼 답이 아니다.

과정 한 줄: 목적어를 주어로 → 동작 주체를 부사어로 → 피동 서술어·과거형

핵심 한 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조사와 서술어도 함께 바꾼다.

표현-043 해설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만드는 동작의 대상인 돌다리가 주어이고 만든 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X	돌다리는 만들어진 대상이다.
③	X	행위자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④	X	-었-이 결합하여 과거를 나타낸다.
⑤	X	여기서는 만들어지는 피동의 뜻이다.

과정 한 줄: 돌다리의 역할 확인 → -어지다 → 동작 주체 생략 확인

핵심 한 줄: 피동문에 동작 주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표현-044 해설

정답: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 칭찬받았다 / 판단: X / 이유: 칭찬을 받는 긍정적인 일도 피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란 항목	모범 답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	칭찬받았다
판단	X
이유	칭찬을 받는 긍정적인 일도 피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인 봉사 활동이 칭찬의 대상이 된다. 문법 용어의 피동은 남의 동작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며, 좋고 나쁜 가치 판단과는 다르다.

과정 한 줄: 칭찬의 대상 확인 → 동작을 받는 관계와 손해 구별

핵심 한 줄: 피동은 동작을 받는 관계이지 피해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표현-045 해설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여러 접미사와 -아/어지다 등의 방식이 있다.
②	O	붙는 접미사가 다르고 대응하는 피동형이 없는 말도 있다.
③	X	주어가 맡은 역할과 문장 전체의 뜻을 함께 살펴야 한다.
④	X	형용사까지 일률적으로 피동사로 만들 수 없다.
⑤	X	능동·피동의 서술어 형태도 확인해야 한다.

과정 한 줄: 기계적인 접미사 결합 점검 → 실제 낱말과 문장 확인

핵심 한 줄: 피동 표현은 모든 동사에 같은 공식을 적용해 만들 수 없다.

표현-046 해설

정답: ㉠: 피동·찢다 / ㉡: 상태 변화·따뜻하다

답란 항목	모범 답
㉠	피동·찢다
㉡	상태 변화·따뜻하다

가의 찢다는 동사이며 종이봉투는 찢는 동작을 받는다. 나의 따뜻하다는 형용사이며 공기가 따뜻한 상태로 변했음을 나타낸다. -어지다의 모양이 같다는 이유로 기능까지 같게 판단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아/어지다가 붙기 전 용언의 기본형·품사 확인 → 동작을 받음과 상태 변화 구별

핵심 한 줄: 형용사 뒤의 -아/어지다는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표현-047 해설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안내문을 원인으로 사람이 읽게 된다는 사동의 뜻으로 바뀐다.
②	O	읽히다만으로 읽는 동작을 받는 뜻을 나타낸다.
③	X	안내문이 읽는 주체가 되어 원래 뜻이 달라진다.
④	X	시키는 뜻이 더해져 원문의 피동과 다르다.
⑤	X	피동 표현을 더 겹쳤다.

과정 한 줄: 읽히다의 피동 확인 → 겹친 -어지다 줄이기

핵심 한 줄: 피동 뜻이 이미 드러나면 불필요한 겹침을 줄인다.

표현-048 해설

정답: ㉠에서 더해진 뜻: 사동·밝게 하다 / ㉡에서 더해진 뜻: 피동·밝히는 동작을 받다 / 이중 피동인지: 아니다. 앞의 -히-가 이 예에서는 사동이기 때문이다.

답란 항목	모범 답
㉠에서 더해진 뜻	사동·밝게 하다
㉡에서 더해진 뜻	피동·밝히는 동작을 받다
이중 피동인지	아니다. 앞의 -히-가 이 예에서는 사동이기 때문이다.

등불을 밝히다는 밝게 한다는 사동의 뜻이다. 여기에 -어지다가 붙었으므로 피동 두 개가 겹쳤다고 하지 않는다. 자료에서 제시한 등불의 뜻에 한정해 판단한다.

과정 한 줄: 앞 형태의 실제 기능 확인 → 뒤 기능 확인 → 피동 겹침 여부 판단

핵심 한 줄: -히- 뒤에 -어지다가 있다고 모두 이중 피동은 아니다.

표현-049 해설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어지다의 기능은 앞말의 품사와 뜻에 따라 다르다.

선지	판정	이유
②	X	정하다는 동사, 맑다는 형용사이므로 분석을 반대로 했다.
③	O	정하다는 동작을 나타내고 새 규칙은 그 동작의 대상이다. 맑다는 공기의 상태를 나타낸다.
④	X	시제와 피동·사동은 다른 기준이다.
⑤	X	공기의 상태가 변한 것이며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시킨 것이 아니다.

과정 한 줄: 정하다·맑다의 품사 확인 → 동작을 받음·상태 변화 구별

핵심 한 줄: -아/어지다는 앞말의 품사와 문맥을 함께 보아 기능을 판별한다.

표현-050 해설

정답: 가: O / 나: X / 나를 고친 판단: 형용사 뒤의 -어지다는 상태 변화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품사와 뜻을 확인해야 한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O
나	X
나를 고친 판단	형용사 뒤의 -어지다는 상태 변화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품사와 뜻을 확인해야 한다.

가는 간결한 표현을 위한 점검 기준이다. 나는 형태만으로 기능을 결정한 잘못이다. 예를 들어 '하늘이 맑아졌다'는 상태의 변화이다.

과정 한 줄: 겹침 줄이기의 목적 확인 → -어지다의 기능 대조

핵심 한 줄: 표현의 모양을 찾은 뒤 그 문장에서의 기능을 확인한다.

표현-051 해설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가는 아기가 자는 주동문이다.
②	X	아버지는 재우는 사람이고 아기가 잔다.
③	X	아기는 사동문에서 목적어이지만 자는 주체이다.
④	X	아버지가 아기를 자게 했다는 사동이다.
⑤	O	사동의 원인 제공자와 실제 동작 주체를 나누어 읽는다.

과정 한 줄: 실제로 자는 대상 확인 → 자게 하는 주체 확인

핵심 한 줄: 사동문에서 목적어도 실제 동작의 주체일 수 있다.

표현-052 해설

정답: 사동문: 감독이 선수들에게 운동장을 달리게 했다.

답란 항목	모범 답
사동문	감독이 선수들에게 운동장을 달리게 했다.

‘감독이 선수들을 운동장에서 달리게 했다’처럼 조사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꾸어도 인정한다. 달리는 사람은 선수들이고 달리도록 한 사람은 감독이어야 한다. ‘감독이 운동장을 달렸다’는 실제 동작 주체를 바꾸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과정 한 줄: 시키는 주체 추가 → 기존 주어의 역할 조정 → -게 했다

핵심 한 줄: 사동문을 만들 때 실제 동작 주체를 보존한다.

표현-053 해설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옷을 입은 사람은 동생이다.
②	O	직접 팔을 소매에 넣어 주었다는 상황이 근거이다.
③	X	접미사 사동은 직접·간접 두 해석이 가능한 예가 있다.
④	X	입히다의 -히-는 여기서 사동을 나타낸다.
⑤	X	자료에 직접 도왔다는 동작이 제시되었다.

과정 한 줄: 상황 속 직접 참여 확인 → 사동 주체와 착용자 구별

핵심 한 줄: 직접 사동 여부는 실제 참여 상황을 근거로 판단한다.

표현-054 해설

정답: 사동문: 민수가 음악 소리를 낮추었다. / 변한 대상과 상태: 음악 소리의 크기가 작아졌다.

답란 항목	모범 답
사동문	민수가 음악 소리를 낮추었다.
변한 대상과 상태	음악 소리의 크기가 작아졌다.

‘민수가 음악 소리를 낮췄다’도 인정한다. 사동사 낮추다는 형용사 낮다에서 나왔으며, 여기서는 음악 소리의 크기를 작게 했다는 뜻이다. 사동은 말로 지시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주어진 변화 확인 → 변화시킨 주체를 주어로 → 낮추다 활용

핵심 한 줄: 사동은 다른 대상의 상태를 변하게 하는 일도 나타낸다.

표현-055 해설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둘 다 신도록 하는 사동이다.
②	X	아이가 신발을 신는 주체이다.
③	O	접미사를 쓴 짧은 사동에는 직접·간접 해석이 가능한 예가 있다. -게 하다를 쓴 긴 사동은 주로 간접 사동이다.
④	X	직접 신겨 준 상황도 가능하다.
⑤	X	신는 사람은 아이이다.

과정 한 줄: 형태별 경향 확인 → 실제 참여는 상황으로 확인

핵심 한 줄: 짧은·긴 사동의 형태와 실제 참여 방식은 나누어 판단한다.

표현-056 해설

정답: 가: 피동·안는 사람은 아버지 / 나: 사동·안는 사람은 아기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피동·안는 사람은 아버지
나	사동·안는 사람은 아기

가에서는 주어 아기가 안는 동작을 받는다. 나에서는 주어 아버지가 아기에게 인형을 안게 한다. 아버지에게·아기에게라는 조사만으로 구별하지 않고 실제 동작 관계를 확인한다.

과정 한 줄: 안는 주체 복원 → 문장 주어의 역할 비교

핵심 한 줄: 같은 안기다라도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 피동·사동이 달라진다.

표현-057 해설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두 문장의 주어가 맡은 역할을 반대로 판단했다.
②	O	가는 탑이 보이는 대상이고, 나는 안내원이 관람객에게 사진을 보게 한다.
③	X	-이-는 피동·사동에 모두 쓰일 수 있다.
④	X	사동문에도 목적어가 나타날 수 있다. 나의 주어 안내원은 관람객이 사진을 보게 한다.
⑤	X	에게만으로 판별할 수 없으며 나는 사동이다.

과정 한 줄: 보는 대상·보게 하는 주체 확인 → 두 문장 비교

핵심 한 줄: 보이다는 피동과 사동에 모두 쓰일 수 있다.

표현-058 해설

정답: 가: 피동·여러 학생이 읽음 / 나: 사동·학생이 읽음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피동·여러 학생이 읽음
나	사동·학생이 읽음

가의 주어 동화는 읽는 동작의 대상이고, 나의 주어 선생님은 학생이 읽게 한 사람이다. 나를 선생님이 직접 읽어 주었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과정 한 줄: 기본 동사 읽다 확인 → 읽는 주체 → 문장 주어의 기능

핵심 한 줄: 읽는 주체와 문장 주어를 구별해 읽히다를 분석한다.

표현-059 해설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먹는 사람은 동생이고, 누나는 동생이 간식을 먹게 한 사람이다.
②	X	-이-는 사동에도 쓰이며, 여기서 누나는 먹게 하는 주체이다.
③	X	동생에게는 실제로 간식을 먹는 사람을 나타내며, 시키는 주체는 누나이다.
④	X	사동문에도 간식을과 같은 목적어가 나타날 수 있다.

선지	판정	이유
⑤	X	사동문에도 목적어가 나타난다. 실제 먹는 동생과 먹게 하는 누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과정 한 줄: 먹는 대상 확인 → 먹게 하는 주체 확인 → 조사만 본 판단 수정

핵심 한 줄: 에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동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표현-060 해설

정답: 피동문: 무지개가 보였다. / 사동문: 동생이 수아에게 그림을 보였다.

답란 항목	모범 답
피동문	무지개가 보였다.
사동문	동생이 수아에게 그림을 보였다.

피동문에 '하늘에' 등을 덧붙여도 인정한다. 사동문에서는 동생이 보게 하는 주체, 수아가 보는 주체, 그림이 보는 대상이어야 한다. '수아가 그림을 보았다'는 주동·능동 표현으로서 요구한 사동문이 아니다.

과정 한 줄: 같은 서술어 유지 → 주어의 역할을 각각 설계

핵심 한 줄: 같은 형태를 써도 참여자의 관계를 달리하면 기능이 달라진다.

표현-061 해설

정답: ②

선지	판정	이유
①	X	진술을 질문으로 바꾸어 원래 뜻과 다르다.
②	O	원래 말과 말투를 따옴표 안에 보존하고 라고를 붙였다.
③	X	내용을 전달하는 간접 인용이다.
④	X	직접 인용 뒤에는 이 문맥에서 라고를 써야 한다.
⑤	X	기분이 좋다는 뜻을 반대로 바꾸었다.

과정 한 줄: 원래 내용·말투 보존 확인 → 따옴표와 인용 표지 확인

핵심 한 줄: 직접 인용은 원래 말의 내용과 표현을 보존한다.

표현-062 해설

정답: 가: 온다고 / 나: 끝났냐고 또는 끝났느냐고 / 다: 앉으라고 / 라: 걷자고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온다고
나	끝났냐고 또는 끝났느냐고
다	앉으라고
라	걷자고

평서·의문·명령·청유라는 원래 문장의 기능을 유지한다. 다의 앉으라고는 명령형 -(으)라에 간접 인용의 고가 붙은 것이고, 라의 걷자고는 청유형 -자에 고가 붙은 것이다.

과정 한 줄: 원래 문장의 종류 확인 → 해당 인용형 선택

핵심 한 줄: 간접 인용의 끝맺음은 원래 문장의 종류에 맞춘다.

표현-063 해설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나의 라고는 명령형 -라와 간접 인용의 고가 결합했다.
②	X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서두르도록 한 명령을 전달한다.
③	X	따옴표로 원래 말을 가져온 것은 직접 인용이다.
④	X	-라는 명령형이고 청유형은 -자이다.
⑤	O	가는 원래 말투를 보존하고, 나는 명령형과 고로 전달했다.

과정 한 줄: 인용한 말의 형식 확인 → 라고의 구성 구별

핵심 한 줄: 라고라는 글자만으로 직접·간접 인용을 나누지 않는다.

표현-064 해설

정답: 간접 인용문: 하린이가 자신이 이 모둠의 발표자라고 말했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간접 인용문	하린이가 자신이 이 모둠의 발표자라고 말했다.

발표자야는 발표자이다의 말투이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발표자라고로 바꾼다. '발표자다고'로 쓰지 않는다. 자료에서 같은 자리의 같은 모둠을 가리키므로 이 모둠을 유지한다.

과정 한 줄: 나의 지시 대상 확인 → 이다의 인용형 → 같은 모둠 유지

핵심 한 줄: 명사 서술어의 간접 인용형도 원래 문장 구조에 맞춰 쓴다.

표현-065 해설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함께와 -자고를 써서 청유의 뜻을 유지했다.
②	X	제안을 과거 행동 여부의 질문으로 바꾸었다.
③	X	함께 하자는 미래 지향적 제안을 과거 진술로 바꾸었다.
④	X	함께 하자는 제안을 혼자 하라는 명령으로 바꾸었다.
⑤	X	가꾸자는 뜻을 금지로 뒤집었다.

과정 한 줄: 같이 하자는 뜻 확인 → 함께 유지 → -자고 사용

핵심 한 줄: 인용 형식을 바꾸어도 청유·명령 등 원래 뜻을 유지한다.

표현-066 해설

정답: 사람: 민서 / 시간: 오늘

답란 항목	모범 답
사람	민서
시간	오늘

원래 말의 나는 민서이고 월요일의 내일은 화요일이다. 화요일의 전달자는 그날을 오늘이라고 표현한다. 수영장에 가는 사람을 지우로 바꾸지 않는다.

과정 한 줄: 월요일의 나·내일 해석 → 화요일 기준으로 다시 표현

핵심 한 줄: 시간 표현을 바꾸어도 실제 약속 날짜는 유지한다.

표현-067 해설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미래 일을 과거의 일로 바꾸었다.
②	X	긍정 내용을 부정으로 바꾸었다.

선지	판정	이유
③	X	오는 사람을 전달자인 준서로 바꾸었다.
④	O	전달일이 같으므로 내일을 유지하고 원래 말한 사람을 밝힌다.
⑤	X	같은 날 전달하므로 내일을 오늘로 바꾸면 날짜가 달라진다.

과정 한 줄: 원래 화자 확인 → 전달 시점 동일 확인 → 내일 유지

핵심 한 줄: 간접 인용이라고 시간 표현을 언제나 바꾸지는 않는다.

표현-068 해설

정답: 간접 인용문: 수빈이가 과학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간접 인용문	수빈이가 과학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수빈이가 과학실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도 인정한다. 원래 말의 이곳은 과학실이며 전달자가 서 있는 복도가 아니다. 장소를 이름으로 밝혀 오해를 줄인다.

과정 한 줄: 원래 발화 장소 확인 → 지시어를 장소 이름으로 바꿈

핵심 한 줄: 이곳이 가리키는 장소는 원래 말한 자리를 기준으로 찾는다.

표현-069 해설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가져왔다는 사건을 버렸다는 사건으로 바꾸었다.
②	X	행위자는 원래 화자인 유나이다.
③	X	행위자와 소유자를 뒤바꾸었다.
④	X	네는 유나가 아니라 민호를 가리킨다.
⑤	O	가져온 사람은 유나, 우산의 소유자는 원래 청자인 민호이다.

과정 한 줄: 나·너의 지시 대상 기록 → 이름으로 바꾸기 → 사건 유지

핵심 한 줄: 인용에서는 행위자와 소유자의 지시 대상을 따로 확인한다.

표현-070 해설

정답: 고친 전달문: 지민이가 오늘 미술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고친 전달문	지민이가 오늘 미술관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온이를 지민이로, 내일을 오늘로 바꾼다. 전달자가 다온이라고 해서 원래 말의 나는 다온이가 되지 않는다. 날짜를 토요일이라고 써도 뜻은 같지만, 이 발문은 전달하는 날을 가리키는 시간 부사 오늘을 요구한다.

과정 한 줄: 원래 화자 확인 → 금요일의 내일=토요일 → 전달일의 오늘

핵심 한 줄: 원래 화자와 전달자를 구별하고 시간 기준도 따로 확인한다.

표현-071 해설

정답: ③

선지	판정	이유
①	X	능력 부정에는 외부 상황의 제약도 포함된다.
②	X	이미 가지 못한 일을 서술한 평서문이다.
③	O	길이 막힌 상황 때문에 갈 수 없었다.
④	X	가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부정이다.
⑤	X	가고 싶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정 한 줄: 가려는 의지 확인 → 길 막힘이라는 제약 확인

핵심 한 줄: 못 부정은 외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표현-072 해설

정답: 가: 단순 부정·가방의 무거운 상태를 부정함 / 나: 의지 부정·스스로 마시지 않기로 함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단순 부정·가방의 무거운 상태를 부정함
나	의지 부정·스스로 마시지 않기로 함

가방이 무겁지 않은 것은 가방의 의지 때문이 아니다. 나에서는 화자가 자기 행동을 결정한다. 같은 안 부정이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를 나눈다.

과정 한 줄: 상태·동작 확인 → 주체의 의지 관여 여부 확인

핵심 한 줄: 안 부정이 언제나 의지 부정인 것은 아니다.

표현-073 해설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못 불렀다를 부르지 못했다로 바꾸어 능력 부정을 유지했다.
②	X	부정을 사동 표현으로 바꾸었다.
③	X	과거 사실을 금지의 청유로 바꾸었다.
④	X	상황의 제약을 의도적인 결정으로 바꾸었다.
⑤	X	부정을 긍정으로 뒤집었다.

과정 한 줄: 못 부정의 이유 확인 → -지 못하다로 전환

핵심 한 줄: 부정의 길이를 바꾸어도 원래의 부정 의미를 유지한다.

표현-074 해설

정답: 가: 친구의 물건을 만지지 마라. / 나: 우리 함께 복도에서 뛰지 말자.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친구의 물건을 만지지 마라.
나	우리 함께 복도에서 뛰지 말자.

가는 명령, 나는 말하는 이를 포함한 청유이다. -지 말다를 활용하되 가는 -마라, 나는 -말자로 끝낸다. 나를 '뛰지 마라'로 고치면 함께하자는 청유의 기능이 달라진다.

과정 한 줄: 원래 종결 종류 확인 → -지 말다 → 명령·청유 유지

핵심 한 줄: 금지 표현에서도 명령과 청유를 구별한다.

표현-075 해설

정답: ①

선지	판정	이유
①	O	모르다는 알지 못함을, 자세하지 못하다는 기대보다 부족함을 나타낸다.
②	X	사물인 설명의 의지가 아니라 설명의 부족한 정도를 말한다.
③	X	긴 못 부정은 형용사와 쓰여 기대에 못 미침을 나타낼 수 있다.

선지	판정	이유
④	X	모르다 자체가 부정의 뜻을 지닌다.
⑤	X	둘 다 내용을 서술하는 평서문이다.

과정 한 줄: 어휘의 뜻 확인 → 긴 못 부정의 문맥 확인

핵심 한 줄: 부정은 안·못이라는 한 글자가 보이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표현-076 해설

정답: 보조사 는을 넣은 부분 부정: 모둠원들이 모두 발표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 인원수를 밝힌 문장: 모둠원 다섯 명 중 세 명은 발표 자료를 냈고 두 명은 내지 않았다.

답란 항목	모범 답
보조사 는을 넣은 부분 부정	모둠원들이 모두 발표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인원수를 밝힌 문장	모둠원 다섯 명 중 세 명은 발표 자료를 냈고 두 명은 내지 않았다.

첫 답은 내지 뒤에 는을 넣어 전원이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 부정을 나타낸다. '모둠원들이 다 발표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처럼 '-지는 않다' 형태면 인정한다. 둘째 답은 세 명 제출·두 명 미제출이라는 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아무도 내지 않았다'는 전체 부정이므로 자료와 다르다.

과정 한 줄: 실제 제출 인원 확인 → 제출·미제출을 각각 명시

핵심 한 줄: 보조사 는으로 부분 부정을 드러내고, 정확한 수는 따로 밝힐 수 있다.

표현-077 해설

정답: ⑤

선지	판정	이유
①	X	딸기 외의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②	X	다른 사람의 행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X	포도를 먹었다는 정보가 없다.
④	X	먹지 않은 이유가 기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O	부정 문장만으로 특정한 대안이나 이유까지 정할 수 없다.

과정 한 줄: 부정된 사실 확인 → 주어지지 않은 대안·이유 구별

핵심 한 줄: 부정한 내용 밖의 사실을 근거 없이 덧붙이지 않는다.

표현-078 해설

정답: 가: 행위자 / 나: 대상 / 다: 시간

답란 항목	모범 답
가	행위자
나	대상
다	시간

대조된 말은 각각 나/동생, 편지/엽서, 오늘/어제이다. 발문은 문장 전체의 긍정·부정만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조하여 부정하는지 묻는다.

과정 한 줄: 아니라 앞뒤의 대조 항목 확인 → 같은 의미 범주로 묶기

핵심 한 줄: 부정 범위는 대조되는 말과 문맥을 근거로 확인한다.

표현-079 해설

정답: ④

선지	판정	이유
①	X	-습니다는 상대 높임의 하십시오체이다.
②	X	과거의 특정 시점에도 동작은 진행될 수 있다.
③	X	주무시는 주체는 할아버지이고 듣는 이는 선생님이다.
④	O	할아버지를 높이고 -습니다로 청자를 대우하며 과거의 수면 진행을 나타낸다.
⑤	X	-지 않다는 안 부정의 긴 형식이다.

과정 한 줄: 인물별 역할 → 어제의 진행 → -지 않다의 형식

핵심 한 줄: 높임·시제·동작상·부정은 각각의 근거로 나누어 판단한다.

표현-080 해설

정답: 간접 인용문: 지우는 감독님이 자신을 오늘 달리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 사동을 나타내는 구성: 긴 사동(-게 하다) / 부정의 형식: 긴 안 부정·-지 않다 / 문장만으로 지우가 실제로 달렸는지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감독님이 달리게 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다.

답란 항목	모범 답
간접 인용문	지우는 감독님이 자신을 오늘 달리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답란 항목	모범 답
사동을 나타내는 구성	긴 사동(-게 하다)
부정의 형식	긴 안 부정‥지 않다
문장만으로 지우가 실제로 달렸는지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감독님이 달리게 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다.

자신은 원래 말한 지우를 가리킨다. '감독님이 자신에게 오늘 달리게 하지 않으셨다고'도 인정한다. -게 하다는 긴 사동, -지 않다는 긴 안 부정이다. 감독님이 달리게 하는 일이 부정되었을 뿐, 지우가 스스로 달렸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감독님을 높이는 -시-와 과거 -었-을 유지한다.

과정 한 줄: 지시 대상·높임 보존 → 간접 인용 → 사동에 대한 부정 → 실제 행동 추론 제한

핵심 한 줄: 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실제 행동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S7 개념–문항 연결표

개념ID	개념	연결 문항
문법07-01	종결 표현	001·002·003·004·005·008·009·062·065·074
문법07-02	의문문의 종류	006·007·008·009·010
문법07-03	세 높임법	011·012·013·014·015·016·018·019·020·023·079
문법07-04	직접·간접 주체 높임	016·017·018·019·020
문법07-05	상대 높임의 등급	021·022·023·024·025·079
문법07-06	시제	026·027·028·029·030·031·034·036·039·040·079
문법07-07	절대 시제·상대 시제	031·032·033·034·035
문법07-08	동작상	036·037·038·039·040·079
문법07-09	능동·피동	041·042·044·045·059
문법07-10	피동의 실현	041·042·043·044·045·046·049·050
문법07-11	이중 피동 주의	047·048·050
문법07-12	주동·사동	051·052·054·059·080
문법07-13	사동의 실현	048·051·052·053·054·055·080
문법07-14	피동·사동의 판별	056·057·058·059·060
문법07-15	직접·간접 인용	061·062·063·064·065·066·067·068·069·070·080
문법07-16	부정 표현	071·072·073·074·075·079·080
문법07-17	부정 범위	076·077·078·080

다음 단원으로: 같은 문법 표현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다음 담화 단원에서는 맥락과 담화의 연결을 살펴본다.